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좋은 독해 습관

실전 풀이 사고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6월 #130 ~ #152

#0 시작에 앞서

대상별 활용 방법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든 정하신 후에 답지를 보세요. 정답의 근거까지 스스로 설명해보신 후에 해설을 보셔야 남길 게 생깁니다. 풀어 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고, 스스로에게 설명도 못하면서, 냅다 해설부터 보면서 '음~ 이게 맞지~ 고려치 고려치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어~' 이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전과 같이 맞히고 틀려가면서 본인에게 남겨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어 실력이 길러집니다.**

중학생·고1

해당 자료로 본인이 고등 국어 '상위권'에 들 수 있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정답 근거를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낸다면, 고등학교 내신·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목표할 수 있습니다. 풀었는데 거의 다 틀린다거나, 해설이 도대체가 뭘 말인지 모르겠고, 나오는 개념어조차도 생소하다면, 국어 공부량을 늘립시다.

고2

이 자료로 본인이 그간 국어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꼼꼼히, 잘, 해왔는지 점검 가능합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얼추 설명해낸다면 당신은 상위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어가 부족하여 문제를 틀린다든지, 주관식으로 생각해 보는 게 힘들고 어색하다든지, 해설지의 좋은 독해·풀이 습관이 잘 안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어 학습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고3·N수

해당 자료로 국어 기초개념 및 기초습관이 잘 잡혀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막힘없이 설명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수능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간간이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설을 토대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점들이 수능 당일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아니 매우 높은 확률로, 아니 반드시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늘 긴장하고 자극받을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잘 해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130 멘토링

좋은 생활 습관 : 가족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는 습관을 들인다.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 30 ~ 50 가정을 만나 뵙는데요.

그 많은 가족들 중에
'진짜 이 집은 내가 들어가서 아들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집은 몇 년에 한번 볼까말까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건실한 직업 갖고 계시고, 사이도 좋으시고,
학생도 뭐 이따금 놀고 이런 건 있지만,
대체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해서 전교권이고,
부모-자식 관계도 늘 신뢰와 응원으로 충만하고,
공부하고 일하느라 각자 힘들다가도 서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은요.
제가 지난 9년 간 딱 '두 번' 봤습니다.

저 역시도,
학창시절에 가족 관계 그다지 좋지 못 했어요.
부모님께서 출근하시며 학교 데려다 주신다고 했는데,
데려다 주시는 차 안에서 하시는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학교 버스타고 가고 그랬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의 가족은요,
좋은 관계일 때는 정말 세상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안 좋은 사이가 되면 하루 공부를 통째로 날릴 만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보기 싫다고 안 볼 수도 없구요

학생 입장에서는 또 살짝 알미운 부분이 있는 게,
어차피 부모님은 애랑 싸우고 난 다음에 TV보시면서 머리 식히면 그만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그러고 나서도 내일 학원 숙제해야 하거든요.
숙제는 해야겠는데, 열나서 펜이 손에 안 잡히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 학생 여러분,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모님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방법을 연구하세요.
매일같이 싸우고, 부들부들 손 떨려서 공부 못하는 그거 언제까지 반복하실 겁니까.
결국 다 본인만 손해예요.

홍삼스틱 그렇게 먹기 싫다고 그랬는데, 또 사오셨다구요?

일단 받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하면서 받은 다음에, 친구 주면 되잖아.

내신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내신만 하라고 한다구요?

일단 하세요.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내신 공부 범위 중에 수능 위주로 푸세요.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셔서 지친다구요?

그럼 방에서 나오질 마시고, 스터디카페로 가시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오세요.

여태 공부하다가 이제 막 놀기 시작했는데 그거만 보고선 또 한소리 한다고?

그럼 부모님이 앞에서는 공부만 하시고, 안 계실 때 이때다 하고 노세요.

저희 아빠도 평소에는 그저 근엄 진지하시다가, 엄마랑 저 집에 없는 날 혼자 계실 땐 진짜 야무지게 노시더라고요.

~~어케 저해고 어케 노하우고 어케 짬밥안거야~~

밥도 그냥 맨날 그냥 비슷한 걸로, 그것도 야채만 한가득 넣어서 맛없게 만들어 주신다구요?

일단 표정 유지하면서 한 손갈 뜨세요. 그리고 한두 번 더 먹다가, 아 속이 좀 안 좋다하고 그만 드세요.

거기다가 대고 대뜸 '아 왜 또 샌드위치에 사과를 넣냐고!' 이런 말 하면서 먼저 화를 내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오자마자 손 씻으라 하고 양말은 세탁 바구니에 넣고 이런 걸로 뭐라 한다구요?

1분만 꼭 참고 그냥 바로 좀 하세요. 아나 제발 해'주'세요.

그래야 잔소리를 덜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집 오자마자 기분 잡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집 와서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핵심은,

누군가가 특히 가족이 나로 하여금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를 하라고 했을 때,

넌다 바로 거부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바로 거절하면 나를 생각해서 얘기해준 분의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럼 또 얼굴 붉히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내가' 손해보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저 거지같은 말 안 들어주지?~~ㅂㅂㅂ~~"를 고민하시기 전에,

"(어차피 안 할 것 같긴 해도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 안상하면서 넘어가지?"를 고민해보세요.

그렇게 안 좋은 마찰은 피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성과를 내시면,

부모님도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다시금 좋은 관계로 전환이 될 여지라도 있습니다.

계속 싫다고만 해서는 이 관계가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이제 좀 깨달으시고,

지혜롭게 피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보면 진짜 별 것도 아닌 걸로 싸워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파이팅!

#131 문법 2023 고2 6모 13번

<보기>

선생님 :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있습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 개수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제시된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있는 대로 모두 찾고 음운 개수의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문제]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것은?

	단어	음운 변동 종류	음운 개수의 변화
①	국밥[국빡]	첨가	하나가 늘어남.
②	똥는[똥른]	교체, 탈락	하나가 줄어듦.
③	막내[망내]	교체, 축약	하나가 줄어듦.
④	물약[물락]	첨가	하나가 늘어남.
⑤	뺨힌[발핀]	축약	변화 없음.

※ 2023년 고2 6월 13번 문법 문제 참조

#131 정답 및 해설

<보기>

선생님 :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있습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 개수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제시된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있는 대로 모두 찾고 음운 개수의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문제]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것은?

단어	음운 변동 종류	음운 개수의 변화
① 국밥[국빡]	첨가	하나가 늘어남.
② 뚫는[뚫른]	교체, 탈락	하나가 줄어들음.
③ 막내[망내]	교체, 축약	하나가 줄어들음.
④ 물약[물락]	첨가	하나가 늘어남.
⑤ 밍[발핀]	축약	변화 없음.

[현장독해]

- 문법은 늘 '함정' 주의! 함정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 없는 것 같다면 내가 못 찾은 것.
- 음~
[좋은 독해 습관 : 익숙한 개념은 함정이 없지만 확인하며 막힘없이 읽어간다]
- 음~~~ 음? '모두?' 이게 함정이겠네.
[좋은 독해 습관 : 문법은 함정주의]

[정답 및 해설] ②번

- 오답률 65%로 2학년 모의고사 최다오답이래는데요. 고1 1학기에 문법 공부한 후, 겨울방학이랑 2학년 1학기 초에 문법 공부 안하면 이 사단이 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 반드시 '문법' 1회독 더 합시다

- ① 표준발음법 제23항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ㅂ'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교체'고, 음운 개수 변화 없습니다. 'ㅂ'에 'ㅂ'첨가되어 'ㅃ'된 거 아닙니다. 'ㅂ, ㅃ' 모두 단자음표에 있는 단자음입니다.
- ② 표준발음법 제12항의 3 [붙임] 'ㄹ'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아서 'ㅎ'이 탈락하였고, 표준발음법 제20항 'ㄴ'은 'ㄹ'의 뒤에서 [ㄴ]로 발음하는 유음화, '교체'가 일어납니다. 음운 개수 하나가 줄어들었네요.
- ③ 표준발음법 제18항 받침 'ㄱ'은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 비음화 교체죠. 축약 없구요. 음운의 개수 변화 없습니다.
+ 받침 'ㅇ'은 음운의 개수에 포함시킵니다.
- ④ 표준발음법 제29항 합성어에서, 앞 단어의 끝이 자음 'ㄹ'이고 뒤 단어 첫음절이 'ㅇ'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ㄴ]로 발음한다. 'ㄴ첨가'입니다. 그 후 표준발음법 제20항 'ㄴ'은 'ㄹ'의 뒤에서 [ㄴ]로 발음하는 유음화, '교체'도 일어났습니다. 음운 변동 종류를 '첨가' 하나만 적어 놓았으므로 거짓입니다. ④번에 '첨가' 있어서 많이들 찍으셨는데요. <보기>를 읽으며 '모두'라는 함정을 파악하고 신경쓰셨다면 실수를 덜 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또한 단어 '물약'만 보고도 위처럼 모든 음운 변동 종류를 '막힘없이' 설명하는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음화 교체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나며 ④번이 틀리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②번을 한 번에 정답으로 찍지 못했더라도 ④번을 찍지 않고 다시 봐서 실수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 음절의 첫소리 'ㅇ'은 음운으로 치지 않는데, ㄴ첨가와 유음화로 생긴 'ㄴ'은 음운 개수에 포함시키므로 음운 개수는 하나 늘어났죠.
[좋은 풀이 습관 : 문법 함정 주의, 쪼개서 원형파악을 통해 실수를 돌이키는 매커니즘 갖추기]
- ⑤ 표준발음법 제12항 [붙임 1] 받침 'ㅂ(ㅃ)'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소리를 합쳐서 [ㅃ]으로 발음합니다. 음운 변동은 '축약'이며, 음운 개수의 변화는 하나가 줄어들었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니 거짓.

#132 작문 2023 고2 6모 9번

[8 ~ 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목적: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한 가치 소비 소개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초고

최근 ‘가치 소비’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가치 소비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치 소비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치 소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학생은 많지 않다. 이에 가치 소비의 개념과 실천 사례, 그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가치 소비란 소비자가 본인의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여 소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 본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과감하게 소비하되,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저렴하거나 실속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가치 소비에는 타인이 부러워할 만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는 소비도 있지만, 다소 비싸더라도 사회적·윤리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비도 있다. 소비가 기부로 연결되는 제품이나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회적·윤리적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 소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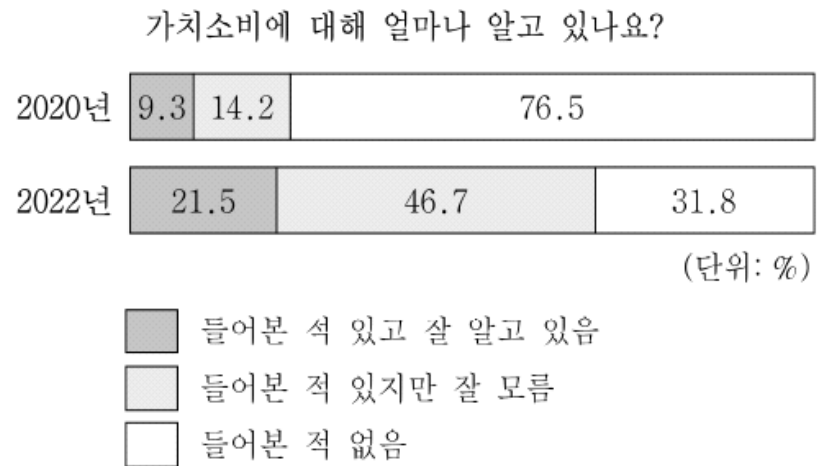
가치 소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미닝 아웃(meaning out)’이 있다. 미닝 아웃은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을 지닌 ‘커밍 아웃(coming out)’을 결합한 단어로, 소비 행위 등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비를 한 후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미닝 아웃의 하나이다. 또한 선행을 실천한 가게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부도덕한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동참에 영향을 주는 형태도 있다.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구매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바람직한 가치 소비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A]

[문제]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료1]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



[자료2] 신문 기사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더라도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이거나 포장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기업 역시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자료3] 전문가 인터뷰

“미닝 아웃으로 판매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거나 불매 운동이 권유가 아닌 강요로 변질된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닝 아웃은 윤리적 소비와 연결되어 사회, 환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비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① [자료1]을 활용하여, 가치 소비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지도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야겠군.
- ② [자료2]를 활용하여,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보충해야겠군.
- ③ [자료3]을 활용하여, 미닝 아웃으로 불매 의사를 표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다루어야겠군.
- ④ [자료1]과 [자료2]를 활용하여,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설명해야겠군.
- ⑤ [자료2]와 [자료3]을 활용하여, 가치 소비가 바람직하게 전개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언급해야겠군.

#132 정답 및 해설

[8 ~ 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목적: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한 가치 소비 소개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초고

최근 ‘가치 소비’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가치 소비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치 소비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치 소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학생은 많지 않다. 이에 가치 소비의 개념과 실천 사례, 그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가치 소비란 소비자가 본인의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여 소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 본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과감하게 소비하되,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저렴하거나 실속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가치 소비에는 타인이 부러워할 만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는 소비도 있지만, 다소 비싸더라도 사회적·윤리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비도 있다. 소비가 기부로 연결되는 제품이나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회적·윤리적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 소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가치 소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미닝 아웃(meaning out)’이 있다. 미닝 아웃은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을 지닌 ‘커밍 아웃(coming out)’을 결합한 단어로, 소비 행위 등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비를 한 후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미닝 아웃의 하나이다. 또한 선행을 실천한 가게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부도덕한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동참에 영향을 주는 형태도 있다.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구매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바람직한 가치 소비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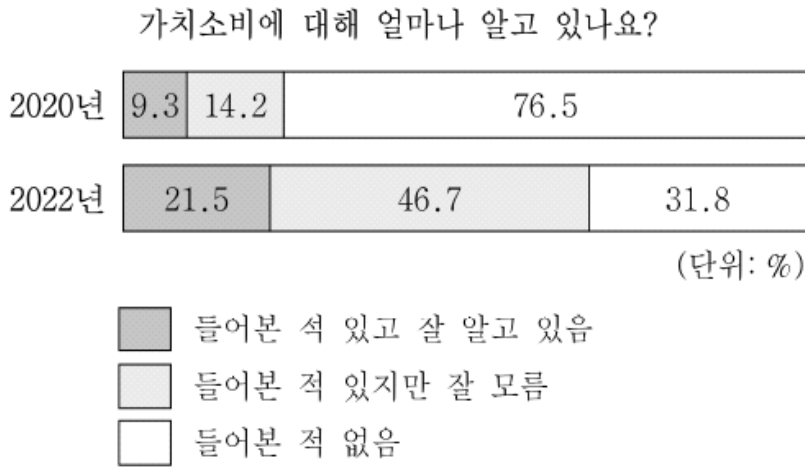
[현장독해]

- 가치소비
- 학생들. 잘 모르는 예상 독자 이런 거 문겠지.
[좋은 독해 습관 : 화법과 작문은 출제요소 미리 생각]
- 설문조사. 근데 왜 수치 안주냐 특이하네
[좋은 독해 습관 : 화법과 작문은 출제요소 미리 생각]
- 개념·실천사례·의의. 지문 전개 미래 얘기해서 이해도 높임 낼 듯
[좋은 독해 습관 : 화법과 작문은 출제요소 미리 생각]
- 개념 나왔고.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지문 뒤 내용 연결]
- 고가 제품 구매. 실천 사례네. 예시를 들어 이해도 높임.
[좋은 독해 습관 : 화법과 작문은 출제요소 미리 생각]
- 사회적·윤리적 소비 = 기부, 동물 실험 안한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지문 뒤 내용 연결]
- 의의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지문 뒤 내용 연결]
- 미닝 = 개인의 사회적 신념이나 가치관, 아웃 = 표출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지문 뒤 내용 연결]
- 가치소비 = 미닝, SNS 게시 = 아웃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지문 뒤 내용 연결]
- 선행 가게 제품 구매, 부정 기업 제품 불매. ‘표현’ = 미닝 아웃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지문 뒤 내용 연결]
- 기업은 가치 생산? 정도 되려나?

[문제]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료1]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



[자료2] 신문 기사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더라도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이거나 포장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기업 역시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자료3] 전문가 인터뷰

“미닝 아웃으로 판매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거나 불매운동이 권유가 아닌 강요로 변질된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닝 아웃은 윤리적 소비와 연결되어 사회, 환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비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① [자료1]을 활용하여, 가치 소비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지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야겠군.
- ② [자료2]를 활용하여,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보충해야겠군.
- ③ [자료3]을 활용하여, 미닝 아웃으로 불매 의사를 표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다루어야겠군.
- ④ [자료1]과 [자료2]를 활용하여,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설명해야겠군.
- ⑤ [자료2]와 [자료3]을 활용하여, 가치 소비가 바람직하게 전개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언급해야겠군.

[정답 및 해설] ④

- (나) 첫 문단 내용이네.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2년 전에 비해 23퍼에서 70퍼로 많이 늘었는데 제대로 아는 학생은 여전히 20%밖에 안 된다 이거네.

[좋은 풀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해 이해도 높이기]

- (나) 마지막 문단 선행 실천 가게 제품 구매

[좋은 풀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해 이해도 높이기]

- (나) 마지막 문단 내용이네

[좋은 풀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해 이해도 높이기]

- (나) 미닝 아웃의 ‘단점’ 지적하는 거네.

[좋은 사고 습관 : 반대적 사고]

- 그래도 미닝 아웃 좋아요.

- ① (나)에는 수치 없었는데, [자료1]로 70% 모른다 이런 얘기하겠네. 참. [좋은 풀이 습관 : 지문-<보기>-선택지 연결]
- ② ‘기업’ 실천 맞고 [좋은 풀이 습관 : 지문-<보기>-선택지 연결]
- ③ ‘부작용’=‘단점’ 맞고 [좋은 풀이 습관 : <보기>-선택지 연결]
- ④ [자료1]에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현상 맞고,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상호 간에 영향을 줘서 가치 소비하고 가치생산하고 이런 건 맞는데, 상호 의존적인 건 애매한데. 서로 없으면 존재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영향 주는 정도?
- ⑤ [자료2] 환경이 더욱 좋아지고, [자료3] 미닝 아웃은 사회 환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게 효과지

★ ④번 상호 의존적 관련 :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 '상호 의존적'이란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하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문이나 <보기>나 소비자와 기업 상호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으니, 상호 의존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이 무슨 국어 빈출 개념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알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①②③④⑤를 몇 번씩 보다보니까, 나머지는 명백히 맞는데 그나마 ④번 상호의존적인 건 좀 애매하다. 느낌이 좀 그렇다는 식으로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④번 외에 다른 것을 왜 짚었는지 정도 오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 오히려 주의해야할 건 그렇게 몇 번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면 '일단 넘어가서 자신의 멘탈, 시간, 페이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화법·작문·문법에서 한두 번 봤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수학처럼 넘어가세요. 이거 쉬운 문제라면서 계속 고민하고 집착하다가 멘탈 털리고, 시간 부족해져서 조급해지고, 페이스 말려서 심심미약 상태가 되면 시험 아예 망칠 수 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집착하지 않고 넘어가서 일단 시험 전체적으로 다 풀어보고 돌아와서 푸는 것이 바로 위기 관리 능력이자, 시험 관리 능력입니다.

#133 문학 2023 고2 6모 16번

<보기 17번>

(가)는 구강이 암행어사로 겨울에 북관을 지나면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쓴 가사이다. 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지방 관리들의 폭정을 대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감상이 드러나 있다. 이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인간에 대한 구강의 연민의 정이 표출된 것이다.

[지문] (가)

현 누더기 입은 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울면서 눈물 씻고 엎어지며 오는 모양
 차마 보지 못할너라 나직이 묻는 말씀
 어디로서 좇아오며 어디로 가려는고
 주려들 가는 사람인가 가게 되면 얻어 먹나
 아무 데도 한가지라 날 따라 도로 가면
 자네 원님 가서 보고 안접(安接)*하게 하여줍세
 겨우겨우 대답하되 우리 곳은 당진(唐津)이라
 여러 해 흉년들어 살길이 없는 중에
 도망한 자 친구환(新舊還)*을 있는 자에 물리니
 제 것도 못 바치며 남의 곡식 어찌할꼬
 못 바치면 매 맞으니 매 맞고 더욱 살까
 정처 없이 가게 되면 죽을 줄 알건마는
 아니 가고 어찌하리 굶고 맞고 죽을 지경
 차라리 구령*에나 염려 없이 못치이던
 도리어 편할지라 이런 고로 가노메라
 급히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살려보세
 둘째 령(嶺)을 올라서서 고을 지경 바라보니
 열 집에 일곱 집은 헹그러니 비었더라
 읍중(邑中)으로 들어가니 남은 집의 곡성(哭聲)이라
 전년의 이천여 호 금년의 칠백 호라
 미혹한 유부사(柳府使)*와 답답한 이도호(李都護)*는
 국곡(國穀)도 중커니와 인명인들 아니 볼까
 백성 없는 곡식 바다 그 무엇에 쓰려하노
 출도한 후 전령하여 니징(里徵)* 족징(族徵)* 없이 하고
 허두(虛頭)잡이 호역들을 태반이나 덜어 주고
 친구환 칠만 석은 탕감하자 아뢰겠네

- 구강, 「북새곡(北塞曲)」

- * 안접 : 편안히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삶.
- * 친구환: 올해 세금과 지난해 세금.
- * 구령 : 무덤.
- * 부사, 도호 : 조선시대 관직의 이름.
- * 니징, 족징 :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 일가족에게 대신 물리던 일.

(나)

십 년 종사(從仕) 후에 고향으로 도라오니
 산천의구(山川依舊)하되 인사(人事)는 달나세라
 아마다 세간존몰(世間存沒)*을 못내 슬허 하노라

<1수>

강산아 나 왓노라 백구(白鷗)야 반갑고야
 청풍명월(淸風明月)도 기다려 줄 알건마는
 성은(聖恩)이 하 지중(至重)하시니 자연지체(自然遲滯)* 하여라

<2수>

산화(山花)는 물의 피고 물시는 산의 운다
 일신이 한가하야 산수간(山水間)의 누어시니
 세상의 어즈러운 기별을 나눈 몰라 하로라

<4수>

거문고 빗기 들고 산수(山水)을 희롱하니
 청풍(淸風)은 건듯 불고 명월(明月)도 도라 온다
 흠물며 유신(有信)흔 물여기*는 오명가명 하느니

<5수>

산수(山水)의 병(病)이 되고 금가(琴歌)*의 벽(癖)이 이셔
 산수(山水) 죠흔 곳의 ㉠금가(琴歌)로 노니노라
 두어라 초로인생(草露人生)*이 아이 놀고 어이 하랴

<8수>

-신교, 「귀산음(歸山吟)」

- * 세간존몰: 세상의 존속과 멸망.
- * 자연지체: 저절로 늦어 머뭇거림.
- * 물여기 : 갈매기.
- * 금가 : 거문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 * 초로인생: 풀 끝에 달린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문제 16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문답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을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상황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133 정답 및 해설

<보기 17번>

(가)는 구강이 암행어사로 겨울에 북관을 지나면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쓴 가사이다. 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지방 관리들의 폭정을 대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감상이 드러나 있다. 이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인간에 대한 구강의 연민의 정이 표출된 것이다.

[지문] (가)

현 누더기 입은 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울면서 눈물 씻고 었어지며 오는 모양
 차마 보지 못할너라 나직이 묻는 말씀
 어디로서 좇아오며 어디로 가려는고
 주려들 가는 사람인가 가게 되면 얻어 먹나
 아무 데도 한가지라 날 따라 도로 가면
 자네 원님 가서 보고 안접(安接)*하게 하여줍세
 겨우겨우 대답하되 우리 곳은 당진(唐津)이라
 여러 해 흉년들어 살길이 없는 중에
 도망한 자 신구환(新舊還)*을 있는 자에 물리니
 제 것도 못 바치며 남의 곡식 어찌할꼬
 못 바치면 매 맞으니 매 맞고 더욱 살가
 정처 없이 가게 되면 죽을 줄 알건마는
 아니 가고 어찌하리 굶고 맞고 죽을 지경
 차라리 구렁*에나 염려 없이 못치이면
 도리어 편할지라 이런 고로 가노메라
 급히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살려보세
 둘째 령(嶺)을 올라서서 고을 지경 바라보니
 열 집에 일곱 집은 행그러니 비었더라
 읍중(邑中)으로 들어가니 남은 집의 곡성(哭聲)이라
 전년의 이천여 호 금년의 칠백 호라
 미혹한 유부사(柳府使)*와 답답한 이도호(李都護)*는
 국곡(國穀)도 중커니와 인명인들 아니 볼까
 백성 없는 곡식 바다 그 무엇에 쓰려하노
 출도한 후 전령하여 니징(里徵)* 족징(族徵)* 없이 하고
 허두(虛頭)잡이 호역들을 태반이나 덜어 주고
 신구환 칠만 석은 탕감하자 아뢰겠네

- 구강, 「북새곡(北塞曲)」

[현장독해]

- 암행어사
 - 백성 피폐, 관리 폭정, 해결 노력
 - 위정자로서의 책임감, 인간에 대한 연민
- [좋은 독해 습관 : <보기> 먼저 보며 지문 독해 시 키워드 파악]**

- 피폐해진 백성의 삶 묘사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표현 - <보기> 키워드 연결해 이해]**
- 암행어사 구강이 누더기 무리한테 물어보는 거네
- 가면 얻어 먹겠냐. 가봤자 못 얻어먹는다.
- 떠나든 남든 같으니까 나를 따라서 도로 가자
- 암행어사니까 해결해주겠다는 거네
- 암행어사 구강 말 들은 백성이 대답하네. 대화의 방식으로 시 상 전개 이런 거 나오겠네. **[좋은 독해 습관 : 출제요소 예측]**
- 흉년 들어 힘든데 도망한 자의 세금도 남은 사람한테 물리고. <보기> 관리들의 폭정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연결]**
- 내 세금도 못 내는데 남의 세금 어떻게 내냐. 못낸다.
 -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 평서형으로 바꾸어 읽기]**
- 갈 수밖에 없다
- 무덤에 묻히는 게 편할 정도. 많이 힘드네.
- 여기서부터 다시 구강이 말하네.
 - [좋은 독해 습관 :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 엄밀히 파악]**
- 70% 비었네. <보기> 백성들의 피폐한 삶
- 나라 곡식도 중요한데, 백성 목숨 생각 안하냐 이것들아.
- 백성 없으면 곡식 있어봤자 쓸 데 없어
- 신구환 해결하네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뒤 표현 연결해 이해]**
- <보기> 해결 노력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표현 - <보기> 키워드 연결해 이해]**

(나)

십 년 종사(從仕) 후에 고향으로 도라오니
산천의구(山川依舊)하되 인사(人事)는 달나세라
아마다 세간존몰(世間存沒)*을 못내 슬허 하노라

<1수>

강산아 나 왔노라 백구(白鷗)야 반갑고야
청풍명월(淸風明月)도 기다려 줄 알건마는
성은(聖恩)이 하 지중(至重)하시니 자연지체(自然遲滯)*하여라

<2수>

산화(山花)는 물의 피고 물시는 산의 운다
일신이 한가하야 산수간(山水間)의 누어시니
세상의 어즈러운 괴별을 나눈 몰라 하노라

<4수>

거문고 빗기 들고 산수(山水)을 희롱하니
청풍(淸風)은 건듯 불고 명월(明月)도 도라 온다
하물며 유신(有信)하 물여기*는 오명가명 하느니

<5수>

산수(山水)의 병(病)이 되고 금가(琴歌)*의 벽(癖)이 이셔
산수(山水) 조흔 곳의 금가(琴歌)로 노니노라
두어라 초로인생(草露人生)*이 아이 놀고 어이 하라

<8수>

-신교, 「귀산음(歸山吟)」

- * 세간존몰: 세상의 존속과 멸망.
- * 자연지체: 저절로 늦어 머뭇거림.
- * 물여기 : 갈매기.
- * 금가 : 거문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 * 초로인생: 풀 끝에 달린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문제 16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문답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을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상황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 일하다가 고향 음
- 자연은 유구, 인간사는 달라짐. 대비네.
- 세상의 변화에 슬픔
- 자연친화
- 청풍명월이 기다려 줄줄 알았지만
- 임금의 은혜가 크니 늦었다. 일하다 고향 늦게 돌아왔다는거네.
- 산꽃은 물에, 물새는 산에. 물과 산의 조화
- 귀향해서 힐링 중
- 세상의 어즈러운 기별 = 속세. 아 몰라 난 은퇴했어.
- 거문고 치며 놀고
- 자연도 좋아하고
- 갈매기도 오며가며 한다
- 거문고 가지고 계속 노네
- 풀 끝에 달린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 <1수> 종장 아마다 세간존몰을 못내 슬허 하노라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뒤 표현 연결해 이해]
- 결국 놀겠다는 거네

[정답 및 해설] ①

- ① (가)에는 암행어사가 묻고, 백성이 대답하는 문답법 있고, (나)에는 없네요. 달리 맞네요. 참. 다시한번 확인해도 (가)에는 있고, (나)에는 없으니 맞지. 정답 나왔고, 검토했고 일단 넘어가서 시간 아끼자.
[좋은 풀이 습관 : 정답이 나오면 한번더 체크하고 넘어가기]
[재밋 : 좋은 독해 습관이 바탕이 되어, 독해 당시 나의 생각과 출제요소가 일치하는 운으로 연결되는]

★★★ 독해 속도 및 생각 속도를 조정하자 ★★★

(가)에 문답법이 매우 중요한, 심지어 일부분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온 시상 전개 방식이었습니다. 지문 독해 당시에 묻고 답하는 상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읽었다면, 독해 속도 및 사고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니 더 늦추시기 바랍니다. 빨리 읽으면 뭐합니까. 빨리 읽다가 문답법 놓쳐서 결국 16번 ②③④⑤ 다 본다고 시간 엄청나게 많이 낭비하면 그게 더 손해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②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을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가)에 피폐해진 당진, 무덤이자 도피처인 '구렁'같은 공간이 나오기는 합니다. 현실vs도피처로 대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공간 대비를 통해서 암행어사로 백성 문제 해결하는 가치를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죠. 공간 대비도 맞고,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난 것이 맞아도, 공간 대비를 통해 지향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출제요소가 총 3개입니다. 출제요소를 디테일하게 쪼개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앞진술과 뒷진술 말고, 앞진술과 뒷진술의 관계까지 파악]
- (나)에서는 귀향해서 돌아온 자연과 어지러운 소식을 보내는 세상의 대비로, 자연을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나 있습니다. 거짓.

③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나) <4수> 초장 '산화는 물의 피고, 물새는 산의 운다'
- (가)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둘 다 있어서 '달리'가 틀리네요.

④ (나)는 (가)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상황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나)에는 구체적 수치 없고
- (가)에는 '전년의 이천여 호 금년의 칠백 호라' 구체적 수치 있죠. 상황 변화 드러내는 것도 맞고. (가) (나)가 바뀌었네요.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 (가)(나)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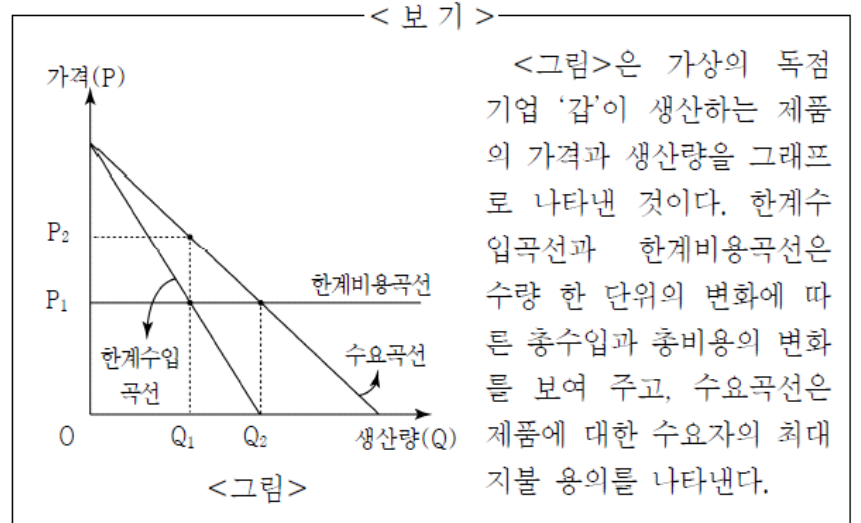
[지문]

‘완전경쟁시장’은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이 없어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이에 반해 ‘독점시장’은 비슷한 대체제가 없는 재화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극단적인 시장으로,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월성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때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장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수입은 일정하며,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반면에 독점시장에서 기업은 ‘가격결정자’로서 시장가격을 조정할 힘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까?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시장가격이 하락한다. 가령 독점기업이 생산한 제품 한 단위를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 두 단위를 판매한다면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야 다 팔 수 있다. 이때의 가격을 90만 원이라 한다면 총수입은 180만 원이 되고,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는 한계수입은 80만 원이 된다. 즉,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 판매 가격도 함께 낮춰야 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이때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입과 더불어 한계비용을 고려한다. 한계비용은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말한다. 만일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후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찾아낸다. 즉,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독점시장에서 기업은 시장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 지문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은 이윤을 최대 높이기 위한 최적 생산량 수준을,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Q1 지점으로 결정할 것이다.
- ② ‘갑’이 생산량을 Q1에서 Q2로 늘리면서 제품의 가격을 P2에서 P1으로 낮춰 공급하더라도, 독점으로 얻고 있던 이윤은 유지될 것이다.
- ③ ‘갑’의 생산량이 Q1보다 적으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이윤을 높이려면 생산량을 Q1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 ④ ‘갑’의 생산량이 Q1이고 공급할 제품의 가격이 P2라면, 해당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얻게 되는 단위당 이윤은 P2-P1이 될 것이다.
- ⑤ ‘갑’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급할 제품의 최종 시장가격을 P1이 아닌 P2로 결정할 것이다.

#134 정답 및 해설

[지문]

‘완전경쟁시장’은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이 없어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이에 반해 ‘독점시장’은 비슷한 대체재가 없는 재화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극단적인 시장으로,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월성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때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장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수입은 일정하며,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반면에 독점시장에서 기업은 ‘가격결정자’로서 시장가격을 조정할 힘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까?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시장가격이 하락한다. 가령 독점기업이 생산한 제품 한 단위를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 두 단위를 판매한다면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야 다 팔 수 있다. 이때의 가격을 90만 원이라 한다면 총수입은 180만 원이 되고,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는 한계수입은 80만 원이 된다. 즉,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 판매 가격도 함께 낮춰야 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이때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입과 더불어 한계비용을 고려한다. 한계비용은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말한다. 만일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후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찾아낸다. 즉,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독점시장에서 기업은 시장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장독해]

- 다 똑같은 우산 파는 그런?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예시를 들어 이해도 높이기]

- 완전경쟁시장 = 진입 장벽 없음, 누구나

vs 독점시장 = 진입장벽 존재, 독점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중심으로 구분하기]

- 경쟁자가 다수 = 1문단 누구나 들어와 경쟁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뒤 표현 연결해 이해]

- 완전경쟁시장 = 기업은 가격수용자 = 시장가격 받아들여서

- 한계수입 일정, 즉 시장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없으니까 50개 팔든 100개 팔든 개당 가격 똑같이 받아야 해서

- 수요과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의 가격 수용해야

vs 독점시장 = 기업은 가격결정자 = 시장가격 조정 가능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중심으로 구분하기]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의 한계수입이 일정하다고 했으니, 독점시장에서의 기업은 한계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기업에 유리하게 조정가능하다는 소리일 듯? [좋은 독해 습관 : 반대적 사고]

-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 2문단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 생산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뒤 표현 연결해 이해]

- 반대의 경우 = 생산량을 늘리면 시장가격이 하락

=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야 다 팔 수 있다

- 생산량을 늘리면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 한계수입 > 한계비용 -> 생산량 증가,

vs 반대의 경우 = 한계수입 < 한계비용 -> 생산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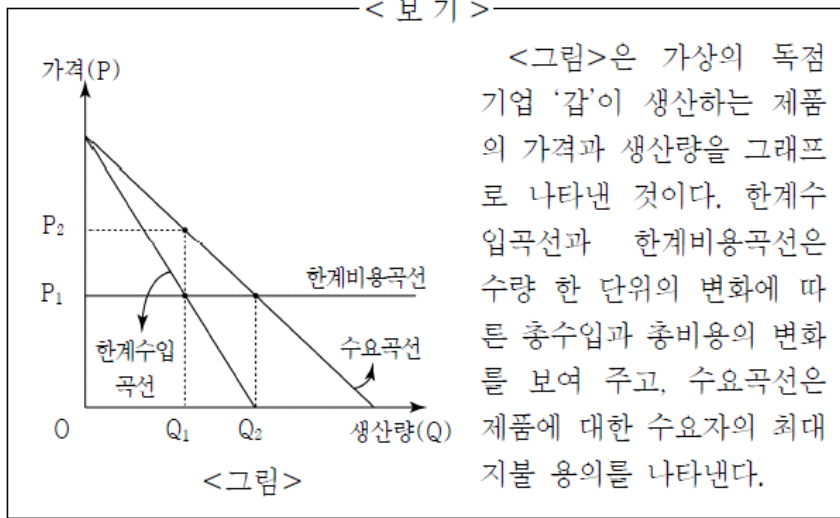
[좋은 독해 습관 : 반대적 사고]

[좋은 독해 습관 : 비례-반비례 관계 파악]

-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 최대 지불 용의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뒤 표현 연결해 이해]

[문제]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은 이윤을 최대 높이기 위한 최적 생산량 수준을,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Q1 지점으로 결정할 것이다.
- ② '갑'이 생산량을 Q1에서 Q2로 늘리면서 제품의 가격을 P2에서 P1으로 낮춰 공급하더라도, 독점으로 얻고 있던 이윤은 유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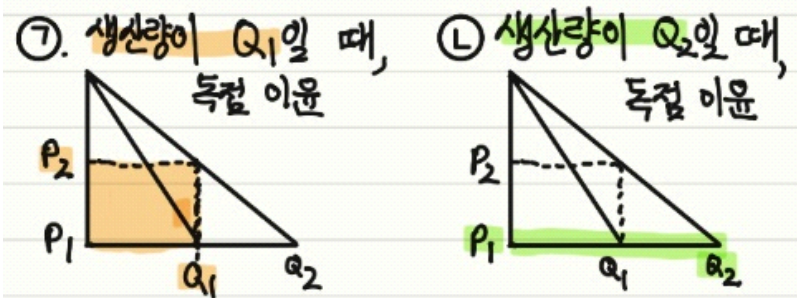
- ③ '갑'의 생산량이 Q1보다 적으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이윤을 높이려면 생산량을 Q1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 ④ '갑'의 생산량이 Q1이고 공급할 제품의 가격이 P2라면, 해당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얻게 되는 단위당 이윤은 P2-P1이 될 것이다.
- ⑤ '갑'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급할 제품의 최종 시장가격을 P1이 아닌 P2로 결정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 한계수입곡선 =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총수입 변화
- 한계비용곡선 =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총비용 변화. 이게 X축에 수평하다니, 생산량을 늘려도 단위당 생산비용 일정하단 뜻.
- 수요곡선 = 수요자의 최대지불용의
- 아 그러니까, 한계비용곡선이랑 한계수입곡선이랑 일치하는 Q1이 최적 생산량이고, 독점기업은 최대지불용의를 나타내는 수요곡선의 Q1지점 가격에 해당하는 P2가격에 수요자들에게 팔 수 있겠네.
- 근데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 판매 가격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지문에서 그랬으니까, 독점기업도 지불용의가격이 P1이 되는 Q2까지 생산하면 총수입 P1 X Q2가 총비용 P1 X Q2랑 같아져서 이익이 안 남겠네.

[좋은 풀이 습관 : <보기>보며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고 선택지로]

- 생각한 거 바로 나왔네. Q1에서 생산하고, P2에 팔겠지. 참
- 생산량이 Q1일 때 독점으로 얻고 있던 이윤은 $(P2 - P1) \times Q1$ 일거고. 저기 저 직사각형이겠네(아래 그림㉠). 생산량이 Q2면 지불용의가격이 P1로 떨어지니까, 독점으로 얻는 이윤은 $(P1 - P1) \times Q2 = 0$ 이겠네.(아래 그림㉡) 이윤 유지 안 되고 사라짐



[좋은 기초 상식 : 수학적 사고, 그래프 분석법]

- 한계수입=한계비용이 되는 최적생산량까지는 높이고, 거기서 독점 효과로 가격을 P1에서 P2까지 높여서, 이윤이 높이기. 참
- 제품 한 단위당 이윤은 판매가격 - 비용이죠. 즉, P2(지불 용의 가격) = 판매 가격) - P1(한계비용). 참
- 독점기업이니까 P2로 결정하겠지. 참

★★★ 수학적 사고와 그래프 분석법 ★★★

그래프에서 X축, Y축, Y절편, 교점, 기울기의 의미, 특정 다각형 넓이의 의미 등을 해석하고자 하면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어 고득점을 위해서는 할 줄 아셔야 합니다. ②번 문제 물론, 다 변하는데 '유지'된다는 건 오만방자해서 틀리다든지, 나머지 ①③④⑤가 너무 맞아서 ②번으로 찍는 소거법이라든지, 어떻게든 풀어내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Q1생산할 때 독점 기업이 아니면 P1 가격 받아야 하는데 독점 기업이라 P2로 받던 걸, Q2까지 생산하면 독점 기업이라고 해도 이제는 P1으로 받아야 하니까 이윤은 줄어들겠거니 해서라도 풀면 훌륭한 학생입니다.(어떤 분들은 이렇게 푸는 것이 국어고 이 이상이면 국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최상상위권들은 ②번 문제를 풀면서 위 그림의 ㉠㉡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떠올려보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 기술, 경제 지문을 풀면서 지문 및 보기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가며 떠올려보는 능력. 그래프에서 선택지가 묘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변수를 기하학적으로 떠올려보는 능력. 저는 기하학적 연상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능력을 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135 문법 2023 고2 6모 11번

[지문]

‘품사’는 공통된 성질이 있는 단어끼리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뜻하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를 뜻한다. 관형사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해당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므로, 서로 문법 단위가 다르다. 그런데 관형사나 관형어는 이름과 그 기능이 서로 유사하여,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관형사는 단어의 성질 자체가 체언의 수식에 있고,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관형사 이외에도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체언 자체로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 (가) 헌 집이지만 나는 고향 집이 정겹다.
- (나) 할아버지의 집을 고쳐서 예쁜 집으로 만들었다.

(가)의 ‘헌’은 ‘집’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이때 ‘헌’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헌’이라는 고정된 형태로만 쓰인다. 즉 ‘헌 책, 헌 구두’와 같이 관형사는 언제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만 쓰인다. 또한 ‘고향’은 명사이지만, 뒤에 오는 체언 ‘집’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체언이 나란히 올 경우 앞의 체언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나)의 ‘할아버지’는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 또한 ‘예쁜’은 형용사인데,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집’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살던 집’, ‘구경하는 집’처럼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문제]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형사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군.
- ② 관형사와 관형어는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군.
- ③ 관형어가 항상 관형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아니군.
- ④ 두 명사가 나란히 올 때 앞 명사는 관형사가 될 수 있군.
- ⑤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관형사가 될 수 없군.

※ 2024학년도 2023년 고2 6모 11번 문법 문제 참조

#135 정답 및 해설

[지문]

‘품사’는 공통된 성질이 있는 단어끼리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뜻하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를 뜻한다. 관형사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해당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므로, 서로 문법 단위가 다르다. 그런데 관형사나 관형어는 이름과 그 기능이 서로 유사하여,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관형사는 단어의 성질 자체가 체언의 수식에 있고,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관형사 이외에도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체언 자체로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 (가) 현 집이지만 나는 고향 집이 정겹다.
- (나) 할아버지의 집을 고쳐서 예쁜 집으로 만들었다.

(가)의 ‘현’은 ‘집’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이때 ‘현’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현’이라는 고정된 형태로만 쓰인다. 즉 ‘현 책, 현 구두’와 같이 관형사는 언제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만 쓰인다. 또한 ‘고향’은 명사이지만, 뒤에 오는 체언 ‘집’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체언이 나란히 올 경우 앞의 체언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나)의 ‘할아버지’는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 또한 ‘예쁜’은 형용사인데,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집’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살던 집’, ‘구경하는 집’처럼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문제] 뒷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형사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군.
- ② 관형사와 관형어는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군.
- ③ 관형어가 항상 관형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아니군.
- ④ 두 명사가 나란히 올 때 앞 명사는 관형사가 될 수 있군.
- ⑤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관형사가 될 수 없군.

[현장독해]

- 품사
- 문장성분
- 9품사 vs 7문장성분. 엄밀히 구분해야지.
 - [좋은 기초 습관 : ‘품사’와 ‘문장성분’을 엄밀히 구분한다]
- 관형사 관형어 둘은 다르지. 엄밀히 구분.
- 구별하는 지문 쓰고 구별하는 함정 내겠네.
 - [좋은 독해 습관 : 작문의도, 출제의도 파악]
- ㉠관형사->관형어 가능. 관형어->관형사 아닌 것도 있음. 포함 관계가 존재한다.
- ㉡체언+관형격 조사 = 관형어 기능,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전성어미 = 관형어 기능, ㉣체언 자체 = 관형어.

- 관형사 ‘현’, 관형어 기능. ㉠이네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지문 뒤 표현 연결]
- 고정된 형태로 ‘만’ 주의 [좋은 독해 습관 : 한정 표현 ‘만’ 주의]
- 체언 명사 ‘고향’, 체언 자체 관형어 기능. ㉢이네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과 지문 뒤 표현 연결]
- 체언 ‘할아버지’ + 관형격 조사 ‘의’, 관형어 기능. ㉡
- 용언 형용사의 어간 ‘예쁘-’ +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 관형어 기능. ㉢
- 용언 동사 어간 ‘살-’ ‘구경하-’ + ‘-던’ ‘-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어 기능. ㉣인데 둘다 용언인데 동사, 형용사 차이.

[정답 및 해설] ④

- 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3문단 관형사는 고정된 형태로 ‘만’
 -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 표현과 유사한 지문표현 떠올려보기]
- ② 둘 다 기능 유사. 공통점 찾기.
- ③ 2문단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어’지. 거짓. 정답 ④번.
 - [좋은 기초 습관 : ‘품사’와 ‘문장성분’을 엄밀히 구분한다]
- ⑤ ‘관형어’가 되는 것이지, ‘관형사’가 되는 건 아니지.

★★★ ‘품사’와 ‘문장성분’을 엄밀히 구분한다. ★★★

겉으로 보이는 출제요소는 ‘관형사, 관형어’의 활용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출제요소는 결국 ‘9품사’와 ‘7문장성분’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문법 공부할 때에도, ‘~사, ~언’으로 끝나는 품사들과 ‘~어’로 끝나는 문장성분을 잘 구분해두는 좋은 기초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속 출제의도가 보입니다. 혹은, 속 출제요소가 보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136 멘토링

절대 긴장하지 말자가 아니라,
긴장해도 잘하자는 마음으로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이렇게 수 천 번 다짐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요.
긴장돼요. 졸라 긴장됩니다.

자신이 몇 번을 복습하면서 외우고,
날 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단 1시간 만에 결정되는 내신 시험,

지난 20년 평생, 최근 1년의 고생을
단 하루 만에 평가받는 수능 시험,

앞으로 1년 혹은 평생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험 앞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당신은 우리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처음 보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낯선 공간에서,
시간의 압박을 받으며,
평소 공부하던거랑 조금 다른 문제를 보는데,
그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긴장하지 말자’는 말은 사실,
뇌정지와서 심신미약와서 시험 망치는,
그런 최악의 일이 내게만은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기원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긴장하지 말자가 아니라,
긴장해도 잘하자는 다짐을 합시다.

긴장된 나머지 펜을 쥔 손이 살짝 떨리는 와중에도,
마킹 잘하자.
면접관의 날카로운 압박 면접에 살짝 당황스러워도,
차분하게 잘 답하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실전에 들어갑시다.

누구나 최악의 상황은 올 수 있으니까,
아니 시험 중엔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위기가 오니까요.
그러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잘하자는**
현실적인 마인드를 갖자구요.

어려운 문제, 안 풀리는 문제,
한 번에 해법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만난 순간,
그래서 살짝 말렸나 싶은 순간,
'긴장되는 와중에도 잘하자'는 그간의 현실적인 다짐이
당신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게 해줄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딱 봐도 엄청 생각할 게 많고 까다로워서
감도 안 잡히는 킬러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래 이 문제만 넘으면,
이거 해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겨내 보자.'라고
속으로 외쳐보세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위기가 '반갑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오호라~ 이번엔 너가 빌런이구나~ 너 내가 넘어줄게. 드루와 어 드루와'
하면서 씩 웃게 되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되더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반드시 곧 나타날 거야.'라는 현실적 마인드,
'그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그걸 이겨내서 좋은 성과를 내보자.'는 도전적 마인드,
이런 다짐을 매일 아침, 혹은 시험 직전에 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오라'든지,
'고통을 즐겨라.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든지 하는
어른들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응원
실질적 액션 플랜입니다.

그저 싫고 고통스럽기만 하던 공부 속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즐길 게 생긴다면
그나마 공부하기 더 낫지 않겠어요?

긴장하는 와중에도 잘 해봅시다.
하루하루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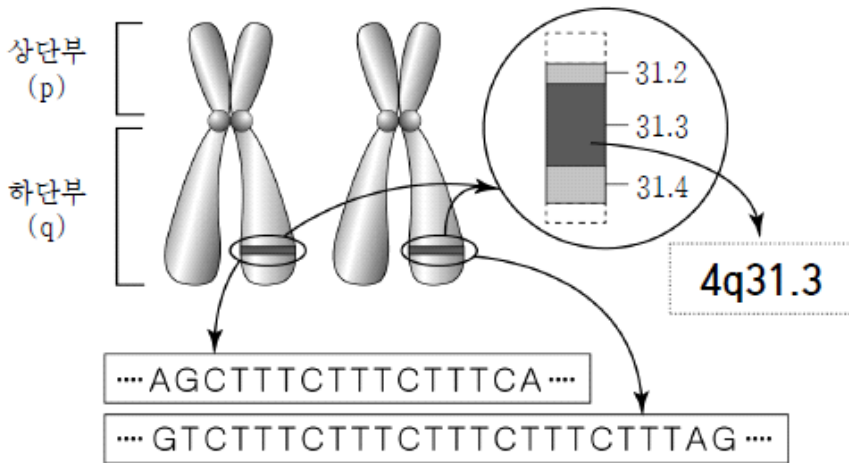
[지문]

과학수사에서 'DNA 분석'은 범인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확인할 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DNA 분석이란 혈흔이나 모발 같은 샘플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STR(Short tandem repeat)'은 '짧은 연쇄 반복'이라는 뜻으로, 'STR 분석법'은 DNA의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STR 분석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상동 염색체, DNA, 염기 서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체세포의 핵에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들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 한다. 상동 염색체는 부계(父系)와 모계(母系)에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다. 이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DNA이다. DNA는 아데닌(A), 구아닌(G), 사이토신(C), 타이민(T)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 약 30억 개로 구성되는데, 이 염기들이 'AGGCTA...'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다. 이것을 DNA의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상동 염색체 내 특정 위치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 짧은 염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STR 분석법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샘플 간 비교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STR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하려는 염색체 내의 위치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그 위치를 '좌위'라고 한다.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좌위가 <그림>과 같이 '4q31.3'일 때, 이 좌위의 '4'는 염색체 번호를, 'q'는 염색체 하단부를, '31.3'은 염색대* 번호를 가리킨다. 이 좌위에는 염기 서열 'CTTT'가 반복되고 있는데, 왼쪽 염색체에서는 세 번, 오른쪽 염색체에서는 다섯 번 반복되고 있다. 이 경우 분석된 결과를 왼쪽부터 표시하여 '3-5'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갑'은 4번 염색체 하단부(q)의 31.3번 염색대 위치에 'CTTT'가 '3-5'인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STR을 분석하여 '3-5'와 같은 결괏값으로 표기하는 것을 'DNA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20개의 좌위를 표준으로 하여 과학수사에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 비교 샘플의 DNA 프로파일 20개 좌위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비교 샘플이 동일인의 것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STR 분석법은 과학수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좌위의 개수도 늘어나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염색대: 염색체를 염색할 때 발생하는 띠 모양.

[문제]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NA에는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지 않아 STR 분석법에서 사용하기 힘든 구간도 존재하겠군.
- ②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는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염색대 번호가 서로 다르겠군.
- ③ 동일인에서 채취한 서로 다른 샘플에서는 같은 좌위라도 염기 서열의 반복 횟수가 다르겠군.
- ④ STR 분석법은 네 종류의 염기가 모두 반복되는 특정 구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겠군.
- ⑤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좌위가 없어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힘들겠군.

※ 2024학년도 2023년 고2 6모 30번 비문학 문제 참조

#137 정답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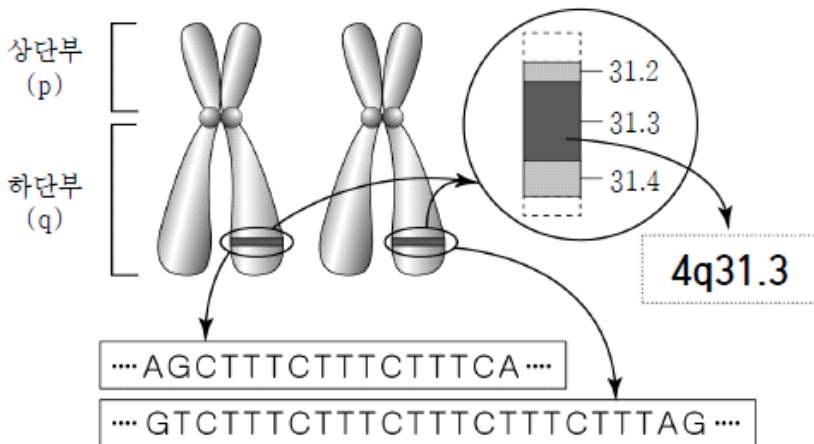
[지문]

과학수사에서 'DNA 분석'은 범인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확인할 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DNA 분석이란 혈흔이나 모발 같은 샘플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STR(Short tandem repeat)'은 '짧은 연쇄 반복'이라는 뜻으로, 'STR 분석법'은 DNA의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STR 분석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상동 염색체, DNA, 염기 서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체세포의 핵에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들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 한다. 상동 염색체는 부계(父系)와 모계(母系)에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다. 이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DNA이다. DNA는 아데닌(A), 구아닌(G), 사이토신(C), 타이민(T)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 약 30억 개로 구성되는데, 이 염기들이 'AGGCTA...'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다. 이것을 DNA의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상동 염색체 내 특정 위치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 짧은 염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STR 분석법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샘플 간 비교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STR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하려는 염색체 내의 위치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그 위치를 '좌위'라고 한다.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좌위가 <그림>과 같이 '4q31.3'일 때, 이 좌위의 '4'는 염색체 번호를, 'q'는 염색체 하단부를, '31.3'은 염색대* 번호를 가리킨다. 이 좌위에는 염기 서열 'CTTT'가 반복되고 있는데, 왼쪽 염색체에서는 세 번, 오른쪽 염색체에서는 다섯 번 반복되고 있다. 이 경우 분석된 결과를 왼쪽부터 표시하여 '3-5'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갑'은 4번 염색체 하단부(q)의 31.3번 염색대 위치에 'CTTT'가 '3-5'인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STR을 분석하여 '3-5'와 같은 결괏값으로 표기하는 것을 'DNA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현장독해]

- DNA 분석 키워드
- STR 분석법으로 키워드 바뀜.
- 짧은(Short) 염기 서열이 연쇄적(Tandem)으로 반복(Repeat)하여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해서 그런가 보네
 - [좋은 독해 습관 : 전문용어-지문표현 연결해 이해도 높이기]
- 상동 염색체, DNA, 염기 서열 설명 나오겠지.
- 상동 염색체 =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존재하는
 -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아서 2개인거네.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표현으로 전문용어의 작명 이유 찾기]
- AGCT 4개 조합해서 늘어놓은 AGGCTA...이 염기 서열. 염기서열 형태로 염기 30억 개 구성된 게 DNA. 3개 키워드 설명 다 나왔네.
- 짧은 염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 = 1문단 'STR 분석법의 분석대상'이었지
-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다' = 이러니까 1문단 '범인 추정하고 피해자 신분 확인' 가능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뒤 표현과 지문 앞 표현 연결]
- 음... 상동 염색체 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을 찾을 때 위치를 고정해야 하니까 '좌위' 특정하나보네.
 - [좋은 독해 습관 : 표현이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왜 그런지 생각]
- 4q31.3이 좌위. 4는 염색체 번호, q는 염색체 하단부, 31.3은 염색할 때 발생하는 띠 모양 번호.
 - [좋은 독해 습관 : 예시 <그림>-지문 표현 연결해 이해도 높이기]
- 왼쪽, 윗줄 CTTT 3번 반복되네. 오른쪽, 아랫줄 CTTT 5번 반복되네. 맞네. 아 이래서 3-5
 - [좋은 독해 습관 : 예시 <그림>-지문 표현 연결해 이해도 높이기]
- 4q31.3에서 3-5라는 'DNA 프로파일'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갑' 하나다 이런 건가봄. 갑의 프로파일.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표현으로 전문용어의 작명 이유 찾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20개의 좌위를 표준으로 하여 과학수사에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 비교 샘플의 DNA 프로필이 20개 좌위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비교 샘플이 동일인의 것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STR 분석법은 과학수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좌위의 개수도 늘어나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NA에는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지 않아 STR 분석법에서 사용하기 힘든 구간도 존재하겠군.
- ②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는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염색대 번호가 서로 다르겠군.
- ③ 동일인에서 채취한 서로 다른 샘플에서는 같은 좌위라도 염기 서열의 반복 횟수가 다르겠군.
- ④ STR 분석법은 네 종류의 염기가 모두 반복되는 특정 구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겠군.
- ⑤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좌위가 없어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힘들겠군.

- 아 '4q31.3 3-5' 1개 좌위만 가지고서 특정할 수는 없고.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뒤 표현으로 앞에 잘못 해석한 것 수정]
- 20개 좌위가 모두 동일하면 동일인 99.999999999...%인가보네. 100%라고는 안했잖아.
[좋은 독해 습관 : 절대적인 표현과 상대적인 표현 구분하기]
- 좌위의 개수는 20개 보다 늘어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번

- ① 반복되는 특정 구간을 분석하는 게 STR이니까, 반복되지 않는 구간도 있겠지 **[좋은 풀이 습관 : 반대적 사고]**
 사용하기 힘든 구간도 있으니까 20개의 표준 좌위 쓰는 것 아닐까? 사용 불가능도 아니고 '사용하기 힘든'이라고 했으니 겸손하고. 여러모로 참인 것 같은데. 긍정형 주관식 문제라서 애매하니까 다 보긴 보자.
[좋은 풀이 습관 : 정답의 확신성이 높으면 짚고 넘어가기 vs 정답의 확신성이 낮으면 나머지 선택지도 다 보고 판단]
- ② '동일한 위치' 즉 좌위가 같으면 염색대 번호 지문 예시 <그림> 31.3처럼 같겠지.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예시'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Up]
- ③ '동일인'에게서는 여러 번 채취해도 같은 좌위라면 염기 서열 반복 횟수가 같아야 STR 분석법이 의미가 있지. 그래야 사람 특정이 가능. 같은 사람인데 채취할 때마다 다르면 안 되니까.
- ④ '모두' 오만방자하지. 지문 <그림> 예시 CTTT도 A랑 G없잖아.
[좋은 풀이 습관 : 오만방자한 극단적 표현 나오면 반례 찾기]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 풀이에 지문 예시 <그림> 계속 활용]
- ⑤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좌위 = 여러 나라에서는 20개의 좌위를 표준으로 하여 과학수사에 동일하게 활용. 공통으로 사용하는 좌위 있음.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 표현과 지문 표현 연결해 이해하기]

[지문]

소크라테스 이후의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 방식이었다. 바로 이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니체이다.

니체에 따르면,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가치는 삶에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데 전통 형이상학은 ㉠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현실적인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사유 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도덕 가치를 좇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즉 ‘힘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하나의 ‘힘에의 의지’가 다른 ‘힘에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에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이다.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강자’들은 삶에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에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아곤(Agon)’, 즉 경쟁이다.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기에 아곤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된다.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르는 위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때의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다.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므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로 드러난다. 즉, 니체의 아곤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 니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을 판단하였다.
- ② 개별적 삶에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여 삶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 ③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삶을 규정하였다.
- ④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가치 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138 정답 및 해설

[지문]

소크라테스 이후의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를 불안정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 방식이었다. 바로 이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니체이다.

니체에 따르면,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가치는 삶에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데 전통 형이상학은 ㉠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현실적인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사유 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도덕 가치를 좇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즉 ‘힘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하나의 ‘힘에의 의지’가 다른 ‘힘에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에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이다.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장독해]

- 현실 세계 = 불안정 = 거짓된
vs 현실 너머의 세계 =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 참된 = 초월적 가치 추구 = 이성적 사유를 통해 초월적 가치 발견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들끼리 따로 그룹 짓기]

- 삶의 외부 = 현실 너머 = 절대적 가치
- 니체 vs 소크라테스 이후의 전통 형이상학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들끼리 따로 그룹 짓기]
- 삶에 유용하고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면 가치있는 것

- 도덕적 선 = 절대적 가치 = 궁극적 목적
vs 개별적 삶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들끼리 따로 그룹 짓기]

- 전통 형이상학은 본능적 욕망, 현실적 삶 싫어함
-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 = 본능적 욕망, 현실적 삶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들끼리 따로 그룹 짓기]

- 니체 : 삶은 그 자체로 목적 vs 전통 형이상학 : 삶은 수단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들끼리 따로 그룹 짓기]

- 전통 형이상학, 도덕 가치, 노예
vs 니체, 스스로의 삶 = 개별적 삶, 주인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들끼리 따로 그룹 짓기]

- 힘에의 의지는 ‘무한동력 창조경제’다 이말인 듯.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문단의 의미 촌철살인]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강자'들은 삶에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에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아곤(Agon)', 즉 **경쟁**이다.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기에 아곤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된다.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르는 위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때의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다.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므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로 드러난다. 즉, **니체의 아곤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 니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을 판단하였다.
- ② 개별적 삶에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여 **삶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 ③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삶을 규정하였다.
- ④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가치 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강자'들은 '힘에의 의지'를 가진 애들이네

- 경쟁자 제압 vs 자신의 성장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들끼리 따로 그룹 짓기]

- 경쟁자 중 강자는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됨

- 고통은 성장의 원동력

- 위계 있어도, 계급은 아니다

- 승패 있어도, 지배가 아니라 상호 존중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들끼리 따로 그룹 짓기]

- 아곤 = 경쟁 = 자신 삶 긍정, 자신 성장, 타자 존중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들끼리 따로 그룹 짓기]

- 보이지도 않는 보편적 진리 찾기 전에 현실적 삶에 집중해서 남이랑 경쟁하면서 자기 성장 시켜라 이게 니체구만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지문 핵심 촌철살인]

[정답 및 해설]

- 니체는 ㉠ 반대하겠지. 절대적 가치를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지 마라, 삶은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현실적 삶 긍정하고 끊임 없이 발전하려고 하면서, 삶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뭐 이런 소리하겠지.

[좋은 풀이 습관 : 주관식으로 정답 생각해보기]

① 니체는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겠지.

② 니체는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겠지.

③ 니체는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부합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겠지.

④ 애매한데...? '삶을 더욱 완전하게' 이런 표현은 전통 형이상학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절대적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니, 절대적 가치 추구하고 딱 거 더 하자는 이런 것도 아니지 않나? ⑤번도 봐야할 듯.

[좋은 풀이 습관 : 애매하고 찝찝한 느낌의 근거를 찾아보기]

[좋은 풀이 습관 : 정답의 확신성이 낮다면

나머지 선택지 다 보면서 정답 판단]

⑤ 편안~하다 이거지. 삶은 가치 평가의 기준.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가. ㉠앞에 있는 니체 얘기고.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로 보는 게 ㉠ 전통 형이상학인데, 이거 니체가 싫어하는 거지. ④번 좀 애매해도 ⑤번 깔끔하게 나왔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138 멘토링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각자 무언가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려는 의지,
즉 '힘에의 의지'를 가집시다.

하나의 '힘에의 의지'로 다른 '힘에의 의지'를 이겨내고,
수시로 나타나는 또 다른 '힘에의 의지'를 이겨내며
가치를 창조하고 생산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자구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려는 '힘에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시고,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갑시다.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강자'가 되어,
삶에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합시다.

'강자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경쟁하며,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킵시다.

그렇다고 경쟁자를 제압하려고 하진 마시구요.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를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로 삼으세요.

경쟁에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힘의 위계나 경쟁의 승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비교를 통해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합시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자구요.

현실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긍정적 태도를 가집시다.
어제보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합시다.

어제보다 나아졌으면 된 겁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성장했으면 된 겁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성장해 나가다보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파이팅!

#139 문법 2023 고1 6모 11번

[지문]

보조사는 앞말에 붙어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격 조사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과 달리, 보조사는 앞말에 결합되어 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

- ㄱ.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 ㄴ. 소설만을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위의 ㄱ에서 ‘만’은 앞 체언에 ‘한정’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으며, ‘도’는 앞 체언에 ‘역시, 또한’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한편 ㄴ의 ‘만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조사와 격 조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문법적 관계는 격 조사가 담당하고 보조사는 앞말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보조사의 다른 특징은 결합할 수 있는 앞말이 체언에 국한되지 않고, 부사, 어미 등의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격 조사+보조사’ 혹은 ‘보조사+보조사’의 형태로도 결합할 수 있고, 격 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㉔ 보조사 중에서 ㉕ 의존 명사 또는 어미와 그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 헷갈릴 수 있다.

- ㄱ. 나는 나대로 계획이 있다.
- ㄴ. 네가 아는 대로 말해라.

위 ㄱ에서 ‘대로’는 대명사 ‘나’에 결합되었기 때문에 보조사로, ㄴ에서 ‘대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의존 명사로 본다.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㉑ ~ 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㉑ 라면마저도 품질됐네.
- ㉒ 형도 동생만을 믿었다.
- ㉓ 그는 아침에만 운동했다.

- ① ㉑ : 격 조사 뒤에 ‘역시, 또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가 덧붙고 있다.
- ② ㉒ : 주격 조사 자리에 ‘도’라는 보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 ③ ㉓ : 보조사 ‘만’과 격 조사 ‘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 ④ ㉔ : ‘에’는 체언에 결합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 ⑤ ㉕ : ‘만’은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앞말이 체언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2024학년도 2023년 고1 6모 11번 문법 문제 참조

#139 정답 및 해설

[지문]

보조사는 앞말에 붙어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격조사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과 달리, 보조사는 앞말에 결합되어 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

- ㄱ.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 ㄴ. 소설만을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위의 ㄱ에서 ‘만’은 앞 체언에 ‘한정’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으며, ‘도’는 앞 체언에 ‘역시, 또한’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한편 ㄴ의 ‘만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조사와 격조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문법적 관계는 격조사가 담당하고 보조사는 앞말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보조사의 다른 특징은 결합할 수 있는 앞말이 체언에 국한되지 않고, 부사, 어미 등의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격조사+보조사’ 혹은 ‘보조사+보조사’의 형태로도 결합할 수 있고, 격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보조사 중에서 의존 명사 또는 어미와 그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 헷갈릴 수 있다.

- ㄱ. 나는 나대로 계획이 있다.
- ㄴ. 네가 아는 대로 말해라.

위 ㄱ에서 ‘대로’는 대명사 ‘나’에 결합되었기 때문에 보조사로, ㄴ에서 ‘대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의존 명사로 본다.

[문제]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 ~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라면마저도 품절됐네.
- ㉡ 형도 동생만을 믿었다.
- ㉢ 그는 아침에만 운동했다.

① ㉠ : 격조사 뒤에 ‘역시, 또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가 덧붙고 있다.

② ㉡ : 주격조사 자리에 ‘도’라는 보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③ ㉢ : 보조사 ‘만’과 격조사 ‘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④ ㉣ : ‘에’는 체언에 결합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⑤ ㉣ : ‘만’은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앞말이 체언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현장독해]

- 격조사 : 문법적 관계 vs 보조사 : 의미 첨가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중심으로 구분]

- 소설 ‘만’ : 보조사 vs 소설 ‘만’을 : 보조사에 목적격조사 추가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중심으로 구분]

- 보조사 ‘만’ + 격조사 ‘을’

- 문법적 관계 : 격조사, 특정한 의미 더해 : 보조사

- 체언, 부사, 어미 뒤에도 보조사 결합.

- 보+격, 격+보, 보+보 다 된다.

- 대명사(나) + 보조사(대로)

vs 관형어(아는) + 의존 명사(대로)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중심으로 구분]

[정답 및 해설] ①번

- 마저 : 보조사, 도 : 보조사
- 도 : 보조사, 만 : 보조사, 을 : 격조사
- 는 : 보조사, 에 : 부사격조사, 만 : 보조사

- 마저(보조사) + 도(보조사)네. ‘라면마저’ 이것도 가능하니까. 격조사+보조사 틀림. 다음 문제로.

[좋은 풀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좋은 풀이 습관 : 확실한 정답이 나오면 넘어가서 시간 아끼기]

- 형도(주어) 동생만을(목적어) 믿었다(서술어). 주어자리에 주격조사 대신 보조사 ‘도’ 맞네.

- ‘만’+‘을’ 맞고.

- 체언(아침) + 부사격조사(에)

- 격조사+보조사. 보조사가 격조사 뒤에도 결합했지.

#140 문학 2023 고1 6모 43번

<보기> 45번

(가),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와 인식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가)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정서를 보여 준다. (나)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 미래보다 현재 상황과 모습에 주목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지문]

(가)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똑똑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불을 쬐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少年)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은 어린다.

- 윤동주, 「소년(少年)」 -

(나)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잊지 마렴 한 줌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만 네 앞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도 바로 너로구나

- 손택수, 「나무의 꿈」 -

[문제] 43번 (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시어의 연쇄적 활용을 통해 시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장소가 지닌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 2024학년도 2023년 고1 6모 43번 문학 문제 참조

#140 정답 및 해설

<보기> 45번

(가),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와 인식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가)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정서를 보여 준다. (나)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 미래보다 현재 상황과 모습에 주목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지문]

(가)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똑똑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불을 쫓아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少年)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은 어린다.

- 윤동주, 「소년(少年)」 -

(나)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잊지 마렴 한 줌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만 네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바로 너로구나

- 손택수, 「나무의 꿈」 -

[현장독해]

- 시간의 흐름. 성장하는 존재, 순수. [앞뒤표현 연결]
- 소년 = 성장하는 존재겠지.
- 과거의 사랑이 순수?려나?
- (나)는 꿈이 소재

- 현재에 주목
[<보기> 먼저 보면서, 지문 독해 시 주목할 키워드 파악]

- 가을. 근데 슬퍼. 그리고 하강이미지.
- 단풍잎 위에 하늘. 하늘보다 파란 색이 눈썹에 물들고, 손바닥에도 묻고, 이 파란색이 손금의 강물(물이 파란색)이 되고 이런 게 <보기> 자연물에 동화되는. 그리고 이거 연쇄법이네.
- 순이가 <보기> 과거의 사랑.
- <보기> 성장하는 존재인 소년의 순수한 정서는 사랑? 첫사랑?
[지문 표현-<보기>표현 연결해가며 읽기]

- ~~아수라발발타~~ ~~어게~~ ~~너~~ ~~정주영아고...~~ 쓸데없는 생각. 넘어가
[쓸데없는 생각나면 멈추고 지문으로]
- 되고 싶니 = <보기> 다양한 꿈 [지문-<보기> 연결]
- 나무니까 의자, 책상, 계단 되는 꿈 [지문-제목 연결]

- 계단 따라 다락방, 다락방의 창문, 창문을 통한 바다. 바다 위의 목선. 연쇄법?
- 배까지. <보기> 다양한 꿈 [지문-<보기> 연결]
-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는
= <보기>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 [지문-<보기> 연결]
- 재가 되었지만 하늘을 난다. 몸을 데워준다
= <보기>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지문-<보기> 연결]

- 지금은 지금 지금이 = <보기> 미래보다는 현재 상황에 주목
- 나무도 <보기>시간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지문-<보기> 연결]

[문제] 43번 (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시어의 연쇄적 활용을 통해 시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장소가 지닌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④번

- ① (가) (나) 반어적 표현 없네.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틀림.
- ② (나) 싶니 싶니 싶니 구나 구나 구나. (가)는 진다 본다 어린다 다 반복 있네. (가)(나) 모두 있으므로, '달리'가 틀림
- ③ (가)에는 의인법 없음. (나)는 제목인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처럼 썼는데, 연민은... 애매하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로가 있기는 하나까 연민될 수도.
- ④ (가) 단풍잎에서 하늘에서 눈썹에서 파란 물감에서 손바닥에서 손금에서 맑은 강물까지. (나) 계단에서 다락방에서 창문에서 바다에서 목선까지. 연쇄법 정답.
- ⑤ (가) 단풍잎 보다가 하늘보다가 손바닥보는 시선의 이동 있고. (나)는 시선의 이동은 없고.

※ 2024학년도 2023년 고1 6모 43번 문학 문제 참조

★ '~와' 달리 문제 푸는 법 : 해체 ★

- '달리' 선택지를 ①②③번 3개 진술로 해체하여 순서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번 진술 : (나)은 ((가)와 달리)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참

-> ①번 진술이 참이므로,

②번 진술 :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참

-> ①번 진술이 참이고, ②번 진술이 거짓이면, ③번 진술 '달리'가 맞으므로 선택지 진술은 전체적으로 참 진술.

-> ①번 진술이 참이고, ②번 진술도 참이면, ③번 진술 '달리'가 틀리므로 선택지는 거짓 진술.

* 만약 ①번 진술부터 틀린 진술이면, 전체 진술도 틀린 진술이므로, 이후 ②③번 진술은 판단하지도 않고 넘어가서 시간 아끼기

* '달리 문제 푸는 법' 관련 복습 문제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1, #101, #133 참고

★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연쇄법은 흥미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산문을 쓸 때 앞 절의 끝에 한 말의 일부분을 고쳐 다음 절에 되풀이 하는 것을 통해 점층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 이론 VS 실전 : 위 글을 읽으며 이론적인 개념이 잡혔다고 해도, 실전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연쇄법'은 앞뒤에 비슷한 표현이 이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동일표현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표현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 가장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연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불을 쏘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 역시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연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문 앞뒤 표현을 습관적으로 연결하며 읽는 좋은 독해 습관이 들어있다면 지문 독해 시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 (다락방에는)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 생각할지도 몰라 / (바다의)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 배가 되고 싶겠구나

: 위 시처럼 '표현'이 생략되거나, '표현'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겉표현이 다른 경우 연쇄법이라는 정답의 확신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만 연쇄가 되어도 연쇄법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 '연쇄법' 관련 복습 문제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50, #98 참고

#141 비문학

[지문]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생산 혁명은 19세기 백화점이 일
으킨 유통 혁명을 통해 소비 혁명으로 이어졌다. 대량 소비 시대
가 되자 사람들의 소비 형태도 바뀌었다. 무엇을 소유했는지 여
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람들은 주위를 의식하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상품을 고르게 되었다.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필요'가 아니라 '자기 과시'로 옮겨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한 베블런은 자신의 책 『유한계급 이론』
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소비 형태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소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보통 사람
들과 신분이 다르다'는 점을 과시하는 부유층이나 이를 모방하려
는 계층이 과시적 소비를 한다고 말했다.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
면 저렴한 상품 대신 고가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
난다. 이렇게 과시적 소비로 인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늘어나
는 현상을 '베블런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시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베블런 재(財)'라고 한다.

라이벤스타인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 '밴
드왜건 효과'와 '스눅 효과'를 발표하였다. 과시적 소비는 일부
상류층과 신형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
위 사람들이 이를 흉내 내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밴드왜건 효과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밴드왜건은 행진할 때 대
열의 선두에서 행렬을 이끄는 악대차를 의미하는데 악단이 지나
가면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무작정 뒤따르면서 군중들이 더욱
더 불어나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밴드왜건 효과는 '모방 효과'라
고도 부른다.

그런데 모방 효과가 널리 퍼져 더 이상 과시적 소비가 차별 효
용*을 상실하게 될 때 일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대신 더욱 진귀한 물건을 찾는다. 이로 인해 기존 상
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스눅 효과'라고 한다. 즉 모
방 효과와는 반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새로운 상품의 수요로 옮겨 가는 현상이
다. 보통 가격이 비싸서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명품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명품이라 알려진 제품이 대대적인 판촉 행사
를 한 후 단골 고객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남
보다 돋보여야 한다'는 속물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속물 효과'
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이 베블런은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한
다는 기존의 경제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현실의 소비 형태를
설명했고, 라이벤스타인은 현대인들이 주위 사람들의 소비 형태
에 따라 자신의 소비 형태를 결정하는 두 가지 모습을 이론으로
나타내었다. 그들의 연구는 소비 형태로 계층을 판단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창고형 할인점의 명품 진열대. ㉠어느 재벌가의 며느리가
들고 나와 유명해진 이 가방의 판매 가격은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되었지만 수백만 원대에 이릅니다. ㉢정가 판매를 고수
하던 상품이지만 전 세계 최초로 할인점에서 판매하여 화제가 되
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은 '인기 상품'이라며 구매를 유도합니
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일부 서민들에게 명품 과시욕을 부추
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뉴스 박△△입니다.

- ① ㉠은 베블런 효과에 의해 가방 구매 욕구가 상승하겠군.
- ② ㉡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관점으로 세운 판매 전략이군.
- ③ ㉢는 속물 효과를 고려하여 단골 고객 유지에 초점을 둔 판매 전략이군.
- ④ ㉣의 판매 전략은 모방 효과를 통해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군.
- ⑤ ㉤는 과시하기 위한 가방 구매 욕구가 상승하겠군.

*차별 효용: 어떤 물건에 대해, 남과 다르게 보인다고 판단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

#141 정답 및 해설

[지문]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생산 혁명은 19세기 백화점이 일으킨 유통 혁명을 통해 소비 혁명으로 이어졌다. 대량 소비 시대가 되자 사람들의 소비 형태도 바뀌었다. 무엇을 소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람들은 주위를 의식하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상품을 고르게 되었다.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필요'가 아니라 '자기 과시'로 옮겨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한 베블런은 자신의 책 『유한계급 이론』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소비 형태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소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보통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는 점을 과시하는 부유층이나 이를 모방하려는 계층이 과시적 소비를 한다고 말했다.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면 저렴한 상품 대신 고가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과시적 소비로 인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베블런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시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베블런 재(財)'라고 한다.

라이벤스타인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 '밴드왜건 효과'와 '스놉 효과'를 발표하였다. 과시적 소비는 일부 상류층과 신혼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위 사람들이 이를 흉내 내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밴드왜건 효과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밴드왜건은 행진할 때 대열의 선두에서 행렬을 이끄는 악대차를 의미하는데 악단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무작정 뒤따르면서 군중들이 더욱더 붙어나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밴드왜건 효과는 '모방 효과'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모방 효과가 널리 퍼져 더 이상 과시적 소비가 차별 효용*을 상실하게 될 때 일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대신 더욱 진귀한 물건을 찾는다. 이로 인해 기존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스놉 효과'라고 한다. 즉 모방 효과와는 반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새로운 상품의 수요로 옮겨 가는 현상이다. 보통 가격이 비싸서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명품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명품이라 알려진 제품이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한 후 단골 고객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남보다 돋보여야 한다'는 속물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속물 효과'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이 베블런은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경제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현실의 소비 형태를 설명했고, 라이벤스타인은 현대인들이 주위 사람들의 소비 형태에 따라 자신의 소비 형태를 결정하는 두 가지 모습을 이론으로 나타내었다. 그들의 연구는 소비 형태로 계층을 판단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장독해]

- 18세기 산업 혁명, 생산 혁명 -> 19세기 유통 혁명, 소비 혁명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파악]

- '자기 과시'가 키워드

- 다른 소비자의 영향을 받는다 = 1문단 사람들은 주위를 의식
- 신분이 다르다고 과시 = 1문단 자기 과시
= 과시적 소비 [앞뒤 문단의 표현 연결]

-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는 = 수요의 법칙[기초 경제 상식]
vs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 베블런 효과
[반대되는 것끼리 구분해서 파악]

- 과시 소비 상품 = 베블런재

- 상류층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흉내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현상 = 밴드왜건 = 악대차 [비슷한 표현끼리 연결]
- 악단 = 상류층, 신혼 부유층 / 군중들 = 주위 사람들
- 밴드왜건 효과 = 모방 효과 [이론-예시 간 비슷한 표현 연결]

- 차별 효용 = 자기 과시해서 남과 차별화되었다고 느껴질 때의 만족감. [*표시 어휘 풀이 참고해서 의미 정리]

- 기존 상품 = 베블런 재'였던 것' 근데 남들도 다 사니까 더 비싼 거 찾게 되는. 언**머? M**M? 톰**운?
[나만의 예시를 들어 이해도 높이기]

- 대대적 판촉 행사 =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
- 단골 고객이 줄어드는 = 더욱 진귀한 물건 찾아 기존 상품 수요 감소 [앞뒤 비슷한 표현끼리 연결]

- 속물 효과 = 스놉 효과 [앞뒤 비슷한 표현끼리 연결]
-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기존 경제 이론과 다른
=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량이 감소 + 가격이 올라도 수요 증가
[반대적 사고]

- 두 가지 모습 = 밴드왜건 효과, 스놉 효과
[앞뒤 문단의 표현 연결]

- '자기 과시' 기원 밝히고, 두 학자의 이론 설명하고, 의의로 마무리. 전개 방식 시험 문제에 내려나? [출제 예측]

[문제]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창고형 할인점의 명품 진열대. ㉠어느 재벌가의 며느리가 들고 나와 유명해진 이 가방의 판매 가격은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되었지만 수백만 원대에 이릅니다. ㉢정가 판매를 고수 하던 상품이지만 전 세계 최초로 할인점에서 판매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은 '인기 상품'이라며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일부 서민들에게 명품 과시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뉴스 박△△입니다.

- ① ㉠는 베블런 효과에 의해 가방 구매 욕구가 상승하겠군
- ② ㉡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관점으로 세운 판매 전략이군.
- ③ ㉢는 속물 효과를 고려하여 단골 고객 유지에 초점을 둔 판매 전략이군.
- ④ ㉣의 판매 전략은 모방 효과를 통해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군.
- ⑤ ㉤는 과시하기 위한 가방 구매 욕구가 상승하겠군.

[정답 및 해설] ①

- ㉠ 상류층. 신흥 부유층. [<보기>-지문 연결]
- ㉡ 대대적인 판촉행사 [<보기>-지문 연결]
- ㉢ 스놉 효과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정가 판매 [<보기>-지문 연결]
- ㉣ 대대적인 판촉행사
- ㉤ 서민들이 사는 건 밴드왜건, 서민들이 사니까 기존 단골 고객이 안사는 건 스놉 [<보기>-지문 연결]

① 베블런 효과 = 가격 오르면 수요 늘어남
-> 반대로 하면 가격 떨어지면 수요 줄어들. 재벌가 며느리는 가방 구매 욕구, 즉 수요가 감소하겠네.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거짓 진술. 정답 ①번.

[반대적 사고 :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볼 줄 아는 응용력]

[맞는지 한번 더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시간 아끼기]

- ② 5문단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경제 이론. 상식적인 수요 법칙 얘기.
- ③ 속물 효과 = 스놉 효과. 할인 판매해서 스놉 효과 일어나면 단골 고객 유지가 안 될테니 정가 판매
- ④ 모방하려는 계층은 싸졌으니까 이때다 하고 사겠지
- ⑤ 이게 모방 효과

#142 문법

<자료>

㉠지붕 공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

<보기> <한글 맞춤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문제] <자료>의 ㉠와 ㉡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적용된 원칙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2021년 고1 9월 15번 문법 지문 참조

#142 정답 및 해설

<자료>

㉠지붕 공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

<보기> <한글 맞춤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문제] <자료>의 ㉠와 ㉡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적용된 원칙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 및 해설] ④

- 보아하니 쪼개서 원형파악하는 문제네. [출제요소 예측]
 - ㉠지붕 = 명사 ‘집’ + 접미사 ‘웅’
 - ㉡마감 = 동사 ‘막다’의 어간 ‘막-’ + 접미사 ‘암’
 [쪼개서 원형파악]

- ㉡가 ㉢에 해당하네. 동사 ‘막다’의 어간 ‘막-’에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아서 ‘막암’이 아니라 ‘마감’으로 적고
 [주관식으로 풀기]

- ㉠가 ㉡에 해당하네. 명사 ‘집’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웅’이 붙어서 된 말이니,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집웅’이 아니라, ‘지붕’으로 적는. [주관식으로 풀기]

- 정답 ④번

※ 2021년 고1 9월 15번 문법 지문 참조

★★★ 이 문제는 맞혔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막힘없이’ 맞혔는지가 중요합니다 ★★★

- 오답률 66%지만, 1학년 문제다 보니 할만 하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떻게든 맞히긴 하셨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맞혔는지가 아니에요. 막힘없이 풀어서 이 문제를 30초 내외로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바로 상위권 변별요소입니다. 아래를 점검해보세요.

1. <자료>의 ‘㉠지붕’, ‘㉡마감’을 보자마자 막힘없이 명사 ‘집’, 접미사 ‘웅’, 동사 어간 ‘막-’, 접미사 ‘암’ 4개로 쪼개서 원형파악이 되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단어 모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파생명사로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이입니다. 생전 처음 봤다면 문법 문제 더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사, 접미사, 동사 어간 등 품사 단위까지 막힘없이 떠올랐는지를 점검하세요. 쪼개서 분석해볼 생각도 못했고, 하려고 시도했으나 조금이라도 막힘이 있었다면 문법 공부 더 디테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면서 ‘명사’와 ‘동사 어간’을 엄밀하게 구분했는지, 둘을 구분하는 것이 출제요소였음을 파악하고 의식하고 풀었는지 점검 해보세요. 또한 제 19항과 제 20항의 가장 큰 차이는 ‘어간’과 ‘명사’를 구분하는 것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시험 순간에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보자마자 ‘어간’과 ‘명사’가 눈에 들어왔는지를 점검하세요. ‘명사’와 ‘동사’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습관이 평소 공부하면서 잘 들어있어야, 한글 맞춤법을 꼼꼼하게 공부하여 19항과 20항의 차이를 한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구분했어야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 '웅'은 사전에 접미사로 등재 안 되어 있고, '암'도 바위나 암자를 의미하는 접미사만 있는데요? 이거 접미사도 아니고 파생명사도 아니고 단일어로 처리하던데요?

- 학자분들 간에 견해차가 있다고 합니다. 접미사 중에서도 생산성 없는 접미사, 파생력이 약한 접미사,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접미사, 공시적 구분, 통시적 구분 등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일단 '접미사'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지붕' 관련

공시적으로 접미사 '-웅'은 파생 접사로서의 파생력이 약한, 즉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접사로 따로 분류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지붕'은 통시적 분석으로는 파생어로 볼 수 있으나, 공시적 분석으로는 단일어로 처리합니다.

*통시적 분석

현대 국어 '지붕'의 옛말인 '집웅'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집웅'은 '집'에 "위"를 뜻하는 '웅'이 결합된 것이다. '집웅'이 '집웅'으로 바뀐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집'에 접미사 '-웅'이 결합된 '집웅'이 '집웅'를 대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집웅'의 제2음절 종성 'ㅎ'이 'ㅇ'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ㅎ' 종성 체언의 'ㅎ'은 탈락되거나 축약되거나 재음소화 되거나 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고 'ㅇ'으로 변하는 경우가 '쌀(>땅) 등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9세기 문헌에 나타난 '집웅'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지붕'은 20세기 이후 문헌에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마감' 관련

한글맞춤법 제 19항 [붙임] 해설

'-이', '-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접미사는 결합하는 어간이 제약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① 명사로 된 것

너머(←넘-어)

뜨더귀(←뜨-어귀)

마감(←막-암)

마개(←막-애)

무덤(←묻-엄)

쓰레기(←쓸-에기)

얼개(←얼-애)

우스개(←웃-으개)

주검(←죽-엄)

② 부사로 된 것

도로(←돌-오)

마주(←맞-우)

모람모람(←몰-암)

미처(←밧-어)

바투(←발-우)

차마(←참-아)

③ 조사로 된 것

나마(←남-아)

부터(←불-어)

조차(←줄-아)

#143 문학

<보기>

‘견회요’는 윤선도가 유배 생활 동안 지은 작품이다.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세상과의 격리로 외롭고 힘든 것이었다. 유배 동안에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거나,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이나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작품 속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모함을 한 상대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지문]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 것인가
이 마음 어리석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생각하여 보소서

<제2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가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줄을 모르는가

<제3수>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외다: 그르다, 잘못되다.

*망령된: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추성(楸城): 지은이가 유배되었던 함경북도 경원.

*므음 호리라: 무엇을 하려고.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은 작가가 내면 성찰을 위해서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킨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② 제2수의 ‘임이 생각하여 보소서’는 작가가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3수의 ‘울어 예는 저 시내야’는 작가가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제4수의 ‘길고 길고’, ‘멀고 멀고’는 작가가 거리감을 통해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제5수의 ‘불효인가 여기노라’는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43 정답 및 해설

<보기>

‘견회요’는 윤선도가 유배 생활 동안 지은 작품이다.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세상과의 격리로 외롭고 힘든 것이었다. 유배 동안에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거나,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이나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작품 속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모함을 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지문]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 것인가
이 마음 어리석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생각하여 보소서

<제2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가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줄을 모르는가

<제3수>

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현장독해]

- 외롭고 힘들게 되면서 작품 씀
- 내면을 들여다보며 삶의 자세 찾는
- 자연물 통해 임금이나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표현
- 억울함 호소, 모함한 쪽 싫어함

[<보기>보면서 지문에서 파악할 부분 체크]

- 슬프든 즐겁든 옳다고 하든 잘못됐다고 하든
- 내 할 일만 할 뿐
- 그 외에 남은 일은 분별 안 한다, 신경 안 쓴다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내 일이 주책없는 줄 나도 안다.
-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임을 위해서였다. : <보기> 유배 중에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임을 위한 삶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네. <보기> 자신의 억울함 호소도 되고. [지문-<보기> 연결]
-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 <보기> 모함을 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네. [지문-<보기> 연결]

- 어휘 풀이 보니까 ‘추성’이 ‘유배지’고 거기 시냇물이 울면서 흘러가네. [어휘 풀이 해석에 반영]
-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표현. 청각적 심상. 거기에 감정이입도 있겠지. 화자 자신이 슬프니까 시냇물도 운다고 느끼는 듯
- 시냇물 너는 뭐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니?
- 임 향한 내 뜻을 따라 시냇물도 너도 그칠 줄을 모르는거지? <보기> 자연물인 시냇물을 매개로 임금을 향한 내 뜻인 그리움을 표현한 거네 [지문-<보기> 연결]

- <보기>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지문-<보기> 연결]
- 내가 부모님 그리워 슬퍼서, 외기러기도 슬퍼서 우는 것 같이 보이는 감정이입. <보기> 자연물 외기러기를 매개로 임금이나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표현. [지문-<보기> 연결]

- 임금 잊으면 그건 불효나 다름없으니, 임금 잊지 않겠다. <보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 드러내는. [지문-<보기> 연결]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은 작가가 내면 성찰을 위해서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킨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② 제2수의 '임이 생각하여 보소서'는 작가가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3수의 '울어 예는 저 시내야'는 작가가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제4수의 '길고 길고', '멀고 멀고'는 작가가 거리감을 통해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제5수의 '불효인가 여기노라'는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현장독해]

- ① 에헤이. 유배는 당한거지. 내면 성찰을 위해서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격리 당해서 내면을 성찰하게 된 것. ①번 틀림. 넘어가서 시간 아끼자. [인과관계 반대로 만드는 것 주의]
- ② 앞에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까지 보면 누군가 모함해도 임이 눈치 채주세요라는 의미이므로, 억울함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 해당 표현에 대해 판단할 때는 주변도 잘 보자[나무(표현 자체)와 숲(표현 맥락) 둘 다 잘 보기]
- ③ 자연물 시내. 시냇물 나온 <제3수>의 종장에 임 향한 내 뜻이라고 했으니 그리움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 [숲과 나무]
- ④ 길다 멀다 = 거리감. 다음에 이어지는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와 연결되어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드러내지.
- ⑤ 임금을 잊으면 불효다 -> 임금을 잊지 않겠다. = <보기>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부정의 부정 주의]

출제요소 : 고전시가 현대어로 막힘없이 풀이

출제요소 : <보기>에 기반하여 지문 해석

출제요소 : 어휘풀이 해석에 반영

출제요소 : 인과관계 역접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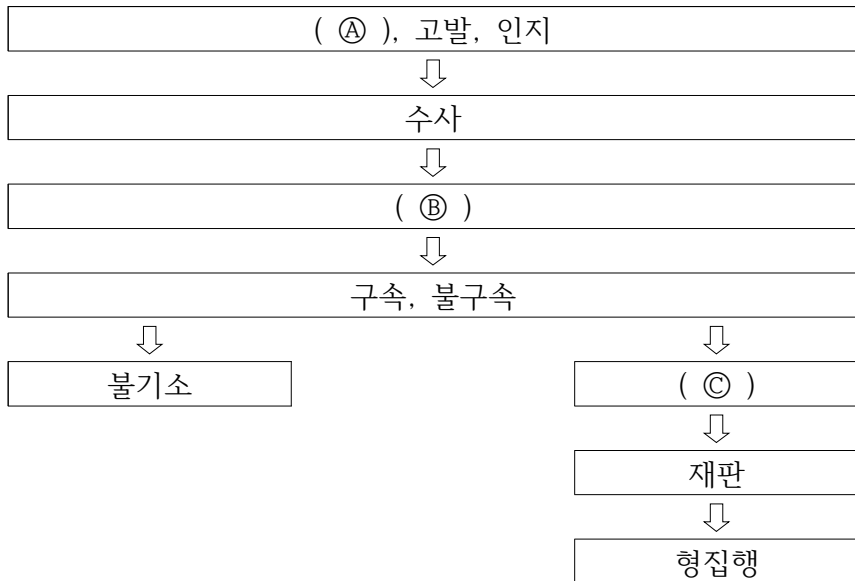
출제요소 : 표현의 의미를 주위 맥락을 기반으로 파악하기

출제요소 : 부정의 부정 주의

#144 비문학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지문]

인간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든다. 여러 규칙 중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강제성을 가진 규칙을 법이라고 한다. 이때 강제성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 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사람들은 숨이 막혀 평온하게 살기 힘들 것이다.

대표적인 법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다. 민법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률로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중요 원칙 중 하나는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 행사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도 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20세기에 들면서 제한이 생겼다. 그 결과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지배는 여전히 보장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수정된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죄형법정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민법과 달리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A]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한다.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인지가 있는데, 이 중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제3자가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은 수사를 진행했다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 영장을 받아 체포해 구속한다. 만약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는 구속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데,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한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소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죄를 선고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고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법에서는 인간 이외의 것들은 생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물건으로 보는데 물건에는 법적 권리가 없다.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의무와 책임도 없다. 그러므로 동물은 민, 형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법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피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심을 받게 돼 수사받고 있는 자.
- *심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법률적 판단을 심사하는 행위.
- *점유자: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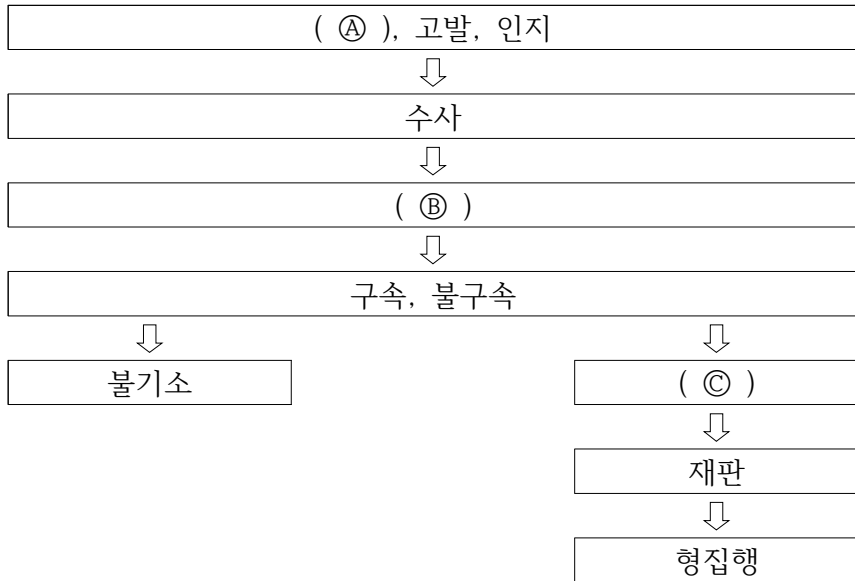
- ① A는 범죄의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가 한다.
- ②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A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B하였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④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C를 해야 한다.
- ⑤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C의 여부를 결정한다.

※ 2018년 고1 6모 40번 비문학 문제 참조

#144 정답 및 해설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지문]

인간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든다. 여러 규칙 중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강제성을 가진 규칙을 법이라고 한다. 이때 강제성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사람들은 숨이 막혀 평온하게 살기 힘들 것이다.

대표적인 법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다. 민법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률로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중요 원칙 중 하나는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 행사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도 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20세기에 들면서 제한이 생겼다. 그 결과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지배는 여전히 보장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수정된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현장독해]

- 그림 있네. 지문 [A] 읽으면서 고발, 인지, 수사, 구속, 불구속, 불기소, 재판, 형집행 이런 단어 나올 때 A③C 찾아보자.

[지문 독해 전 문제를 쓱 보며 <보기><그림> 등 지문 독해 시에 참고할 것들 체크]

- 문제=분쟁 예방 혹은 해결을 위한 규칙 [습관적 동어반복]

- 합의, 강제성 있는 규칙 = 법 [습관적 동어반복]

- 강제성은 공익, 구성원 동의할 때'만' 발휘 [한정표현 주의]

- 결과 중시
- 평가 및 변화 확인 가능한 것이 결과라서
- 국가 및 권력자 견제해서 국민 권리 보호
- 최소간섭

- 법의 개념 및 특징 정리해놓은 문단이네 [문단 내용 정리]

- 법의 종류. 민법 vs 형법

- 국가기관은 형법 vs 사람들 간은 민법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

-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 인정.

- 재산에 손해 끼치면 위법

- '동시에' 고의·과실 있는 경우에'만' 책임 [한정표현 주의]

- 악용 ->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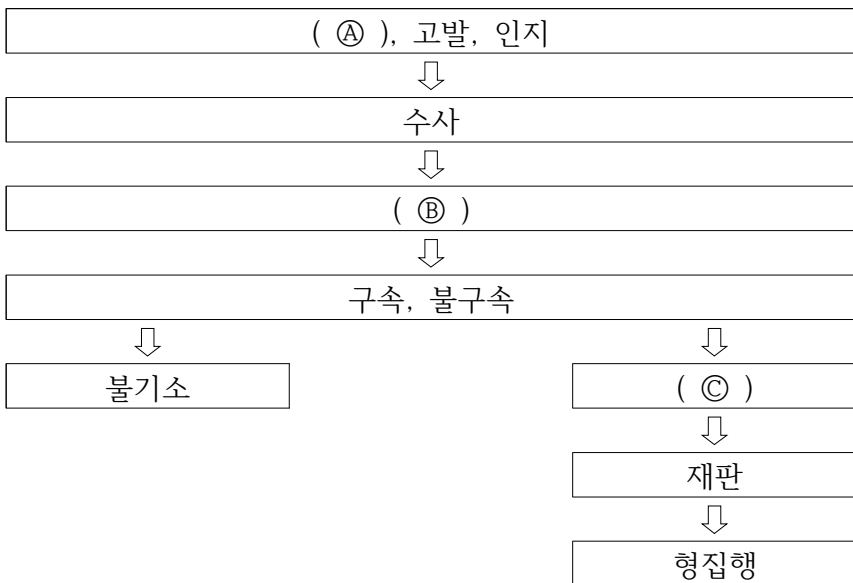
- 사유 재산도 공공복리(=공익)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반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죄형법정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민법과 달리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A]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한다.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인지가 있는데, 이 중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제3자가 한다. 일반적으로 범칙은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은 수사를 진행했다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 영장을 받아 체포해 구속한다. 만약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는 구속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데,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한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소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죄를 선고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고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법에서는 인간 이외의 것들은 생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물건으로 보는데 물건에는 법적 권리가 없다.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의무와 책임도 없다. 그러므로 동물은 민, 형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법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2문단은 민법 vs 3문단은 형법
- 죄형법정주의 = 법률에 미리 그 범죄 행위와 처벌이 정해져 있어야.

- 소급 적용 안 된다. 즉, 원래 법으로 없던 걸 법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지기 전에 범죄 저지른 사람 처벌하는 건 불가하다였지.

[법지문 기초 상식]

- 민법과 '달리' 차이점 주목. 즉, 형법은 유추 적용 못함 vs 민법은 할 수 있겠네.

[차이점 중심 정리]

- 피해자가 고소vs 제3자가 고발vs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 시작. 주체가 다른 게 차이점이네. Ⓐ는 고소. [차이점 중심 정리]
- 반의사불벌죄 말하는 듯.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안 한다였지.

[법지문 기초 상식]

- 근거 있으면 구속 영장 -> 체포 -> 구속
-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 = 현행범이면 구속 영장 없이 체포해서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결정. 이론상 96시간까지도 걸리겠네. 덧셈 문제 내려나. 아 그리고 Ⓓ가 구속 영장 신청, 체포겠네.

[법지문 기초 상식] [출제요소 예측]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검사가 기소 vs 불기소할 수도 있다. Ⓒ가 기소겠네.
- 기소하면 법원이 사건 사실 및 법률적 판단 심사하고 범죄면 유죄. 유죄면 형 선고 및 집행
- 수사부터 형 집행까지의 절차를 소개해놨네 [문단 내용 정리]
- '한편'으로 지문길이 늘어났네. '동물'이 키워드
- 동물은 사고 쳐도 책임 없다.

- 동물은 물건이라서.
- 권리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
- 그래도 개인 사유 재산 보호해야하니 동물의 소유자, 지배자에게 민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는 당사자가 '고소'하는 거고
[선택지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빈칸 스스로 채워보기]

Ⓑ는 구속영장 신청 후 체포하는 거겠네. 현행범이면 체포 후에 구속영장신청이고.
[선택지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빈칸 스스로 채워보기]

Ⓒ는 검사가 '기소'하는 거겠네.
[선택지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빈칸 스스로 채워보기]

[정답 및 해설] ②

① ㉠는 범죄의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가 한다.

- '고소'는 당사자가, '제3자'는 고발. 거짓.

②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 '고소'없어도 제3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 인지하면 수사는 진행할 수 있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 하는 거지. 수사랑 처벌은 다르지. 참. 정답.

③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하였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 = 현행범을 체포하였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거고, 신청 접수 후 법원이 48시간 이내 구속 영장 발부. 거짓. 지문 읽으면서 생각해둔 게 선택지로 그대로 나왔네. 잭팟.

④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를 해야 한다.

-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지. 거짓.

⑤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의 여부를 결정한다.

-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원의 판사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하겠지. 거짓.

★★★ 법지문 관련 기초 개념어와 기초 상식을 공부해두자 ★★★

법지문은 기초 상식, 기초 개념, 기초 용어 없이 순수 독해력만으로 읽어서 다 맞히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내용 일지라도 좋은 독해 습관을 바탕으로 한 현장 독해, 즉 순수 독해력으로 다 풀 수 있어야 하는 게 비문학의 대원칙이긴 한데요. 다만, '영어' 영역도 '영단어'와 '구문법'이라는 기초 없이는 문제를 맞히기 힘든 것처럼, '법' 영역도 기초 없이 다 맞히긴 힘듭니다. 이렇게 일반 교과 범위 외의 전문 영역일지라도 관련 기초 상식을 요구하는 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23년 6월에 와서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단, 이 문제는 출제 범위를 벗어난 킬러문제고 앞으로는 안 나올 버려도 될 쓰레기 문제로 치부하고 무시하지 마시구요. 내 눈앞에 주어진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맞히겠다는, 현실에서 성과를 내는 마인드로 아래의 용어들을 공부해둬시다. 아래 용어들은 출제자가 법지문 쓰면서 수험생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들입니다. 위에 '고등학교 1학년'지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휘 풀이에 다 써주지도 않고 그냥 다 갖다가 써요. 어휘 풀이에 적어주지 않고, 지문에도 부연설명 안 해준 표현은, 기초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출제자가 요구한 것입니다. 기초적인 용어들을 알아두지 않으면, 출제자는 엄밀하게 구분해서 표현했는데 수험생은 구분하는 건지 눈치 못 채구요. 출제자는 의도해서 의식해서 표현한 건데 수험생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기초적인 공부를 해두셔서, 남들은 틀리고서 문제 욱하고 출제자 욱하고 있을 때, 여러분만큼은 맞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법지문 관련 기초 개념어 ★★★

- 자유 :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 권리 : 특정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 능력
- 의무 : 법률로써 강제로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일. 권리의 반대.
- 책임 :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률상의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일.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나뉨.

- 민법 :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의 상속·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사법(私法)의 일반법
-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형률(刑律).

- 위법 : 법을 어김 ↔ 적법
- 적법 : 법규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규 ↔ 위법

- 고의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한 경우의 심리 상태. ↔ 과실(過失).
- 과실 : 어떤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과오(過誤) ↔ 고의(故意).

- 사유재산 : 개인 또는 사법인(私法人)이 소유하는 재산.
- 공공재산 : 공공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
- 점유 : 물건,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하여 자기의 소유로 함.

- 사익 : 개인의 이익. 사리(私利) ↔ 공익(公益).
- 공익 : 공공의 이익. ↔ 사익(私益).

-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가하는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주의.
- 소급 : 지나간 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 유추해석 : 어떤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을, 아무런 규정이 없는 다른 유사한 사항에 적용하는 법의 해석 방법. 유추.

- 피해자 : 불법 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생명이나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나 손해를 본 사람. ↔ 가해자(加害者).
- 가해자 :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재산·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 피해자.
- 피의자 : 범죄의 혐의는 받았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 용의자(容疑者).
- 제3자 : 당사자가 아닌 사람. 삼자.

-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법적 처리를 요구함.
- 고발 :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일
- 인지 :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일

- 수사 :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공소(公訴)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해, 범인 및 범죄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활동.
- 체포 : ① 죄인을 쫓아가서 잡음. ② 검사·사법 경찰관 등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잡아서 일정 기간 억류하기 위한 강제 수단.
- 구속 : ① 체포하여 신체를 속박함. ② 자유행동을 제한 또는 정지시킴.
- 구속영장 :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영장

- 기소 :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함. 기송(起訟).
- 심리 :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 선고 :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 처벌 : 형벌에 처함.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통을 줌. 또는 그러한 벌.
- 집행 : 법률·명령·재판·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혹은 '강제 집행'의 준말.
- 배상 : 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 줌.

- 인정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실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
- 유죄 : 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 무죄.
- 무죄 :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음. 또는 그렇다는 판결. ↔ 유죄.
- 반의사 불벌죄 : 형법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인격 : 법률 관계, 특히 권리·의무의 주체이며, 법률상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
- 법인격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인격
- 물건 : 물품 따위의 동산과 토지나 건물 따위의 부동산의 총칭.

#145 화법

[지문] 다음은 학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학생들이 학교 산책로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오늘은 이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학교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산책로 이용에 관한 교내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산책로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산책로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이 중 80% 정도는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대 1: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근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쉼터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마구 뒤섞여 있고, 쓰레기통 주위도 지저분해져서 악취와 벌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 설치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누가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실 청소도 벽찬 상황에서 산책로 쓰레기통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그것을 담당할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반론을 들겠습니다. 반대 측부터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은 산책로 바로 옆 매점에도 있으니 산책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쓰레기통을 설치한다고 해도 산책로가 깨끗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습관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책임 의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성 2: ○○고등학교에서 쓰레기통 설치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통만을 설치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거울삼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쓰레기통을 함께 설치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급별 순번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주인 의식을 기를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다음 자료를 위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 1]

최근 □□ 공원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요청과 편의를 고려하여 휴지를 비치한 것인데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습관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 측은 화장실에 홍보 문구를 붙여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례 2]

△△ 마을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운영하여 화제이다. 이 마을에서는 쓰레기장은 지저분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수거함에 꽃이나 캐릭터를 그려 넣은 결과 분리수거장의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분리수거장이 모두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주민들은 요일별로 청소를 분담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애항심을 기를 수 있었다.

- ① [사례1]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홍보 문구를 부착했다는 내용을,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반대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사례1]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방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을, 쓰레기통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2'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사례1]에서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기존 쓰레기통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쓰레기통 설치의 의미가 없다는 '반대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사례2]에서 쓰레기장이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개선했다는 내용을,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찬성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사례2]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애항심을 기를 수 있었다는 내용을, 학급별 순번제 도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2'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145 정답 및 해설

[지문] 다음은 학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학생들이 학교 산책로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오늘은 이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학교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산책로 이용에 관한 교내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산책로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산책로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이 중 80% 정도는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대 1: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근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쉼터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마구 뒤섞여 있고, 쓰레기통 주위도 지저분해져서 악취와 벌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 설치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누가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실 청소도 벅찬 상황에서 산책로 쓰레기통까지 관리해야 한다면 그것을 담당할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반대 측부터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은 산책로 바로 옆 매점에도 있으니 산책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쓰레기통을 설치한다고 해도 산책로가 깨끗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습관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책임 의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성 2: ○○고등학교에서 쓰레기통 설치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통만을 설치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거울삼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쓰레기통을 함께 설치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급별 순번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주인 의식을 기를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독해]

- 산책로에 쓰레기 버리는 게 문제. 쓰레기통 설치가 키워드.
- 논제 제시. 발언자 안내. [화작 빈출 요소 사회자 역할]

-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 높임. [화작 빈출 요소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쓰레기가 산책로 이용 안하는 주된 이유

- 쓰레기통 설치해도 문제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분리수거 안 되고 악취 벌레 문제 나타난 사례 제시. [화작 빈출 요소 사례 제시]

- 관리 담당할 학생들에게 부담

- 발언 지정으로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사회자 역할 [화작 빈출 요소 사회자 역할]

- 매점 쓰레기통 이용하면 된다.

- 쓰레기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과 습관이 문제다

- 학생들의 인식, 책임의식과 습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

- ○○고등학교 문제랑 다를 수도.

- 반대 1이나 찬성 2나 재활용 문제 파악 [공통점 찾기]
- 재활용 쓰레기통 같이 설치

- 순번제 관리 시스템 도입하면 학생 관리 부담 줄이기 가능
- 학생 주인 의식

[문제] 다음 자료를 위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 1]

최근 □□ 공원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요청과 편의를 고려하여 휴지를 비치한 것인데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습관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 측은 화장실에 홍보 문구를 붙여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례 2]

△△ 마을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운영하여 화제이다. 이 마을에서는 쓰레기장은 지저분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수거함에 꽃이나 캐릭터를 그려 넣은 결과 분리수거장의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분리수거장이 모두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주민들은 요일별로 청소를 분담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애향심도 기를 수 있었다.

- ① [사례1]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홍보 문구를 부착했다는 애용을,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반대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사례1]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방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을, 쓰레기통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2'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사례1]에서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기존 쓰레기통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쓰레기통 설치의 의미가 없다는 '반대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사례2]에서 쓰레기장이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개선했다는 내용을,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찬성1'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사례2]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애향심을 기를 수 있었다는 내용을, 학급별 순번제 도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2'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정답 및 해설] ②번

- 잘못된 인식과 습관이 문제. 홍보 문구 붙이기.
- = 반대2가 말한 원인과 해결방안이랑 비슷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요일별 청소분담 = 찬성2 학급별 순번제 관리 시스템
- 애향심 = 찬성2 학생 주인 의식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① 캠페인 활동 필요하다는 건 '반대2'가 얘기했지. '반대1'이 아니라.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 엄밀히 구분]
- ②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방안 = 공중화장실 휴지 [선택지-<보기> 연결해 읽기]
+ 쓰레기통 설치 = 학생 불편 해소. but 인식과 습관이 문제라서 쓰레기통으로 해결 안 된다는 '반대2'랑 비슷. 참. 정답 ②번.
- ③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 = 휴지 무분별하게 사용.
+ '반대1'의 주장은 설치 반대. 근거는 설치해서 다른 문제 생기고, 관리부담 있어서. '기존 쓰레기통 재정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쓰레기통 설치의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음. [없는 것을 있다고 해도 거짓]
- ④ 인식 개선 내용은 '반대2'의 주장.
+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건 '찬성2' 주장.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 엄밀히 구분]
- ⑤ 쓰레기통 관리 부담이 생기는 부작용을 학급별 순번제 도입으로 해결하는 것.
+ 학급별 순번제 도입의 부작용은 나오지 않았음. [없는 것을 있다고 해도 틀림]
+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애향심을 기를 수 있었다는 내용과 학급별 순번제 도입으로 주인 의식을 기를 수 있었다는 내용은 부작용이 아니라 효과임.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는 응용력]

#146 문법

[지문]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단어의 분류 기준

- 형태 변화 여부
-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
- 단어가 지닌 의미

<보기>

-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

[문제] 지문의 학생 노트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와 ‘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③ ‘두’와 ‘하나’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 2017년 고1 11월 11번 문법 지문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46 정답 및 해설

[지문]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단어의 분류 기준

- 형태 변화 여부
-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
- 단어가 지닌 의미

<보기>

-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

[문제] 지문의 학생 노트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와 ‘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③ ‘두’와 ‘하나’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현장독해]

- 형태 변화 여부 = 가변어나, 불변어나
-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 = 어떤 문장성분으로 쓰이냐
- 단어가 지닌 의미 = 의미에 따라 9품사, 혹은 더 구체적으로 나뉘는

[출제자의 표현을 내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기]

-> 결국 품사, 문장성분 파악하는 문제겠네 [출제요소 예측]

- 이걸 품사, 문장성분 단위로 다 미리 분석해서 주관식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선택지 먼저 보면서 눈알 굴리기 하는 게 나을 듯.

[상황에 맞게 풀이 전략 유연하게 변화]

[정답 및 해설] ③번

- ① ‘도’, ‘만’ 보조사. 불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맞는 진술.
- ② ‘이루다’ ‘그리다’ 동사. 가변어. 용언으로서 활용하면서 형태가 변하는. 맞는 진술.
* ‘-었-’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쪼개서 원형파악]
- ③ ‘두’는 수관형사, ‘하나’는 수사. ‘두’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관형어’로 기능하는 수식어 중 관형사 중 수관형사. ‘하나’는 문장 안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 중 수사. ‘하나’는 수식의 기능을 하지 않지. 정답 ③번. [수사vs수관형사 엄밀히 구분하기]
- ④ ‘나무’ ‘꽃’ 명사 중에서도 보통 명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냄. 맞는 진술
- ⑤ ‘넓다’ ‘희미하다’ 형용사 중에서도 성상 형용사.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맞는 진술.
* ‘-게’ 부사형 전성어미 [쪼개서 원형파악]

★★★ 쪼개서 원형파악 ★★★

2023학년도 수능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 관련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과 '분석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언어' 영역을 다 맞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만, 막힘없이 다 맞혀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문장의 짜임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구조

-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렸다. : 앞 문장
- 우리가 원 하나를 이루었다. : 뒤 문장

문장성분

- 우리도 : (앞 문장의) 주어
- 두 : (앞 문장의) 관형어
- 팔을 : (앞 문장의) 목적어
- 넓게 : (앞 문장의) 부사어
- 벌렸다 : (앞 문장의) 서술어

* (우리가) : 뒤 문장의 주어 '우리가'는 앞문장의 주어 '우리도'와 중복되므로 생략.

- 원 : (뒤 문장의) 관형어
- 하나를 : (뒤 문장의) 목적어
- 이루었다 : (뒤 문장의) 서술어

품사

- 우리 : 1인칭 대명사 복수형
- 도 : 보조사

- 두 : (양)수관형사

- 팔 : 보통명사
- 을 : 목적격조사

- 넓- : 성상형용사 '넓다'의 어간

- -게 : 부사형 전성어미 =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형으로 만드는 말.

- *벌리- : 타동사 '벌리다'의 어간

- -어 : (끝음절의 모음이 'ㄱ, ㄴ'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원 : 보통명사. *'명사' '원'이 체언 '수사' '하나'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므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경우.

- 하나 : 수사
- -를 : 목적격조사

- 이루- : 동사 어간

- -었- :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 -다 : 어말어미. 종결어미.

* 벌다 vs 벌리다

- 벌다 : 자동사 1. 틈이 나서 사이가 뜨다. (예시) 문짝이 벌다.

- 벌리다 : 타동사 1. (사람이 접혀 있는 것을) 펴서 뻗치다. (예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아 주었다

2.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

문장의 짜임 : 안은문장-안긴문장 (속 안긴문장) 구조

- 어떤 꽃만 희미하다 : ㉠안은문장
- 동생이 어떤 탁자에 꽃을 그리다 : ㉠안은문장의 명사 '꽃'을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
- 탁자가 나무로 되어 있다 : ㉡안긴문장의 명사 '탁자'를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 속 안긴문장.

문장성분

- 동생이 : ㉡안긴문장의 주어
- 나무로 : ㉢안긴문장 속 안긴문장의 부사어
- *된 : ㉢안긴문장 속 안긴문장의 서술어 '되어 있다'의 본용언 '되다'에 관형형 전성어미 '-ㄴ'이 붙어 안긴문장의 '관형어' 역할
- 탁자에 : ㉡안긴문장의 부사어
- 그린 : ㉡안긴문장의 서술어 '그리다'의 동사 '그리다'에 관형형 전성어미 '-ㄴ'이 붙어 안은문장의 '관형어' 역할.
- 꽃만 : ㉠안은문장의 주어
- 희미하다 : ㉠안은문장의 서술어

*** '되다' '되어 있다' '된' 관련**

- 되다 : 동사 「...으로」 1. 어떤 재료나 성분으로 이루어지다. (예시) 나무로 된 책상.
- 되어 있다 : '로 되다'는 재료나 성분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 '~로 되다'는 '~이/가 되다'로 쓸 수 없고 '나무로 되어 있다'처럼 '~로 되어 있다'로 쓴다. 관형형일 때는 관형형 전성어미 '-ㄴ'을 써서 '나무로 된 책상'처럼 '있다'와 결합시키지 않고 쓰일 수 있다.
- 된 : 동사 '되다'의 활용형. 어간 '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뒷말의 명사나 명사구를 꾸민다.

품사

- 동생 : 보통명사
- -이 : 주격조사
- 나무 : 보통명사
- -로 : 부사격조사.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조사.
- 되- : 동사 '되다'의 어간
- -ㄴ : 관형형 전성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탁자 : 보통명사
- -에 : 부사격조사
- 그리- : 동사 '그리다'의 어간
- -ㄴ : 관형형 전성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꽃 : 보통명사
- -만 : 보조사
- 희미하다 : 형용사
- * **희미** : '희미하다'의 어근, '-하다' : ((몇몇 어근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147 멘토링

프로들의 모습1.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코로나 심할 때

학교고 학원이고 난장판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시험기간이 미뤄졌다가 거기서 한번 또 미뤄지기도 했죠.
시험 과목 순서가 바뀌질 않나,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첫째셋째 주만 갔다가도 했구요.
선생님이 확진되더니, 같은 반 친구가 사라지고,
본인도 격리되고, 학원도 갑자기 폐쇄되는 등
정말 수많은 혼돈이 있었죠.

아마 인생 통틀어 처음 겪어본 엄청난 카오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혼돈 속에서조차도
시험 결국 다 봤고, 성적은 결국 다 갈렸고,
전교권 하던 애들은 거의 그대로 전교권 하지 않던가요?

소위 전교1등이라고 하는 놈들분들은
도대체 왜 맨날 시험을 잘 볼까요?

한 번도 못 본 기상천외한 문제가 나왔는데 풀긴 했다고 하고,
더럽고 치사한 문제라 다 틀렸는데 그걸 또 지 혼자 짚어서 맞혔대요.
시간이 엄청 부족한 시험이었는데 겨우 다 보기는 봤다고 하구요.
유형이 암기형이고 수능형이고 내신형이고 논술형이고
난이도가 불이고 물이고 간에, 성적 받을 거 받더라구요.

왜 애네는 한결같이 그렇게 시험을 잘 볼까요?
정말 그렇게나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뭐 학교 선생이고 학원 선생이고 평가원장이고 다 매수해서 카르텔...

아니요.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대한민국 통틀어 몇 명 안 됩니다.

그저,
최악부터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맞춤식으로 다 대비해 두고,
남들보다 더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잘 보는 겁니다.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잡고,
매 순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양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저 그 때 성과를 낸 사람이 승자고,
한번 시험 망친 사람이 패자라고 구분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패자는 사실 따로 있거든요.

성과가 안 좋게 나온 바로 그 순간,
'중국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정부 방역 정책 때문에
못한 거라고 남 탓하고 합리화하던 사람이 진정한 패자'입니다.

물론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분명 억울한 면이 있을 거구요.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근거로 한 자기변명을 당당하게 늘어놓아도요.
남들이, 세상이, 요새 그다지 공감해주질 않아요.

겉으로만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공감이나 툭 던져 주고,
뒤에 가서는 오히려 지가 못해놓고 남탓이나 한다고 차단 박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를 반성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해, 내 성장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장의 안 좋은 일에 덜 상처받게 되고,
다음 지옥에서는 전보다 더 잘해내자고 다짐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불평등·불합리함·불확실성은 특수한 조건에서 발현되는 예외적 특징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 특성이라는,
냉정한 현실 감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현실은
최악의 상황인 경우가 보통이고,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예외고 이상한 거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기는 게 프로입니다.
아니, 최악의 상황에서 이기는 게 프로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길 수 있도록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두고 싸우는 게 프로입니다.

하루하루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나를 다잡아 가며
프로가 됩시다.

#148 문학

<보기> 40번

고전 소설 속에 삽입된 시는 서사 맥락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물의 심리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거나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사건을 전개시키거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고 분위기 형성, 인물들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문]

앞부분 줄거리 | 경기도 장단에 사는 선비 김 주부는 무남독녀 매화를 슬하에 두고 있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 주부를 해치려고 하자, 그는 매화를 남장시켜 길거리에 두고 부인과 함께 구월산으로 몸을 피한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조 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들인 양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성장한다.

이때에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 흔적 있거늘 양유가 가로되,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냐. 아마도 곡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하더라. 매화 흔연히 웃으며 가로되,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 아니 슬프리요.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쌈을 배울 것이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리요. 본디 골격이 연연하매 지각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거니와, 일후 장성하여 골격이 웅장하면 장부 분명하올지라.”

하고 단정히 앉아 풍월을 읊으니 소리 웅장하여 호치(皓齒)를 들어 옥반(玉盤)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양유 그 소리 들으며 남자가 분명하되 이향(異香)이 만당(滿堂)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일러라.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개(景概)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월 지어 화답하매 매화 양유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양유선득춘(楊柳先得春)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하불락(梅花何不樂)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하였더라.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호접미지화(胡蝶未知花)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부득수(鴛鴦不得水)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하였거늘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 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여 가로되,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그러하면 백년해로 어떠하뇨.”

매화 고개를 숙이고 수색(愁色)이 만안하여 가로되,

“나는 과연 여자이거니와 그대는 사부(士夫)집 자제요, 나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라. 어찌 부부 되기 바라리요. 낸들 양지작을 모르리요마는 피차 부모의 명이 없삽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에 욕이 되올 것이니 어찌 불효짓을 하리요.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한다면 낸들 아니 좋으리까.”

양유 희색이 만안하여 가로되,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마침 이때에 시비 옥란이 급히 와 여쭙오되,

“외당에 상객이 왔으매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양유 매화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매 과연 상객이 있는지라. 병사가 가로되,

“두 아이 상을 보라.”

한대 상객이 가로되,

“매화의 상을 보니 여자로소이다.”

병사가 가로되,

“그대 상을 잘못 보았도다. 어찌 여자라 하리요.”

상객이 가로되,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리요.”

매화 무료하여 학당에 돌아가니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되,

“내두(來頭)*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불쌍코 가련토다. 나 이 16세 되면 호식(虎食)*할 상이오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 하고 왔도다.”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대 상객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불견(勿忽不見)*이거늘 실로 고이하여 살펴보니 상객 앉았던 자리에 한 봉서 놓였거늘 즉시 개탁(開塚)*하니 하였으되,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삼일에 필연 호식(虎食)하리라.’

하였더라. 병사 대경하여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가로되,

“너를 보고 여자라 하니 실로 고이하도다.”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거늘 매화 두 번 절하고 가로되,

“소녀 어찌 기망(欺罔)*하오리까. 소녀 과연 여자로소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옵고 일신을 감출 길 없사와 남복을 입고 기망하였사오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거늘 병사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하여 가로되,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치 말라.”

하시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요. 행실을 가르치라.”

하거늘 최 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 외당에 나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일후는 매화로 더불어 한자리에 앉지 말

라.”

하신대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차설이라.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당에 있으며, 시서(詩書)에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월명사창(月明紗窓)*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 제,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뉘로 하여금 공부하며 뉘로 하여금 노잔 말가.”

이렇듯이 자탄할 제, 이때 최 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 매화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남동생 있으며 혼사할 뜻이 있어 모계(謀計)를 꾸미더라.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상객이 이리이러하니 내두 길흉을 어찌하리요.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매화는 유리결식하는 아이라, 근본도 아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병사 옳이 여겨 가로되,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일후에 장단골 가서 매화 근본을 알리라.”

- 작자 미상, 「매화전」 -

*내두(來頭): 지금부터 다가오게 될 앞날.

*호식(虎食): 호랑이에게 잡아 먹힘.

*인홀불견(勿忽不見): 보이다가 슬쩍 없어져 보이지 않음.

*개탁(開拆): 봉한 편지나 서류를 뜯음.

*기망(欺罔): 그럴듯하게 속여 넘김.

*월명사창(月明紗窓): 달이 밝게 비치는 창.

[문제] 다음 진술의 참/거짓을 판단하십시오

1. 인물과 인물의 참여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참 / 거짓)
2.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참 / 거짓)
3. 양유는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매화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 (참 / 거짓)
4. 매화는 부모의 허락을 전제로 양유의 청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참 / 거짓)
5. 상객은 양유와 매화가 혼인하지 않으면 양유에게 불행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참 / 거짓)
6. 병사는 매화의 용모와 양유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를 바탕으로 둘의 혼인에 대해 최 씨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참 / 거짓)
7. 최 씨는 매화의 근본을 핑계 삼아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참 / 거짓)

※ 2019년 고1 6모 38번 ~ 40번 문학 문제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48 정답 및 해설

<보기>

고전 소설 속에 삽입된 시는 서사 맥락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물의 심리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거나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사건을 전개시키거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고 분위기 형성, 인물들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문]

앞부분 줄거리 | 경기도 장단에 사는 선비 김 주부는 무남독녀 매화를 슬하에 두고 있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 주부를 해치려고 하자, 그는 매화를 남장시켜 길거리에 두고 부인과 함께 구월산으로 몸을 피한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조 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들인 양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성장한다.

이때에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 흔적 있거늘 양유가 가로되,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냐. 아마도 곡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하더라. 매화 흔연히 웃으며 가로되,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 아니 슬프리요.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라 밝히고 길쌈을 배울 것이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리요. 본디 골격이 연연하매 지각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거니와, 일후 장성하여 골격이 웅장하면 장부 분명하올지라.”

하고 단정히 앉아 풍월을 읊으니 소리 웅장하여 호치(皓齒)를 들어 옥반(玉盤)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양유 그 소리 들으며 남자가 분명하되 이향(異香)이 만당(滿堂)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일러라.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개(景概)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월 지어 화답하매 매화 양유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양유선득춘(楊柳先得春)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하불락(梅花何不樂)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하였더라.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호접미지화(胡蝶未知花)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부득수(鴛鴦不得水)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하였거늘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 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여 가로되,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그러하면 백년해로 어떠하뇨.”

[현장독해]

- 시 효과
- 심리 함축적으로 드러냄, 인물 비유적으로 표현, 주제 집약적으로 전달, 사건 전개, 사건 전개 방향 암시, 분위기 형성, 인물들 간의 의사소통 매개.

- 지문에서 '시' 나올 때 시 효과 연결하자

[<보기> 읽으면서 지문 독해 시 챙길 부분 체크]

- 매화 남장. 부모는 구월산으로 텀.
- 조 병사 집 아들 양유와 매화 함께 성장.

[앞부분 줄거리로 상황 및 배경 파악]
[특히 고전소설을 '인물' 및 '모티프' 중심으로 파악]

- 매화 여자인데 남장한 거 사람들에게 들켰나보네. [상황 파악]

- 내가 여자면 여자라고 했겠지 남자 옷 입고 남 속였겠냐. 안 속였다. 내가 골격이 작아서 여자라고 하는데 크면 남자처럼 보일거야. 매화 거짓말치네.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파악]

- 발성은 남자다운 매화.
- 양유야 또 속냐?

- 시 나오네. <보기>랑 연결하자. [지문-<보기> 연결해가며 읽기]

- 매화야 봄 왔는데 왜 안 즐거워 하니.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파악]

- 나비가 양유, 꽃이 매화? 원앙새가 양유. 물이 매화?

[지문 앞뒤 표현, 특히 고전소설은 동일 인물의 다른 표현 연결]

- 양유가 매화 여자인거 눈치 챘네. 시로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매화 여자인거 알게 되며 사건 전개되네. [상황 파악]

매화 고개를 숙이고 수색(愁色)이 만안하여 가로되,
 “나는 과연 여자인가니와 그대는 사부(士夫)집 자제요, 나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라. 어찌 부부 되기 바라리요. 낸들 양지작을 모르리요마는 피차 부모의 명이 없삽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에 욕이 되올 것이니 어찌 불효짓을 하리요.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한다면 낸들 아니 좋으리까.”
 양유 희색이 만안하여 가로되,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마침 이때에 시비 옥란이 급히 와 여쭙오되,
 “외당에 상객이 왔으며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양유 매화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매 과연 상객이 있는지라. 병사가 가로되,
 “두 아이 상을 보라.”
 한대 상객이 가로되,
 “매화의 상을 보니 여자로서이다.”
 병사가 가로되,
 “그대 상을 잘못 보았도다. 어찌 여자라 하리요.”
 상객이 가로되,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리요.”
 매화 무료하여 학당에 돌아가니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되,
 “내두(來頭)*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불쌍코 가련토다. 나이 16세 되면 호식(虎食)*할 상이오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 하고 왔도다.”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대 상객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불견(勿忽不見)*이거늘 실로 고이하여 살펴보니 상객 앉았던 자리에 한 봉서 놓였거늘 즉시 개탁(開塚)*하니 하였으되,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삼일에 필연 호식(虎食)하리라.’
 하였더라. 병사 대경하여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가로되,
 “너를 보고 여자라 하니 실로 고이하도다.”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거늘 매화 두 번 절하고 가로되,
 “소녀 어찌 기망(欺罔)*하오리까. 소녀 과연 여자로서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옵고 일신을 감출 길 없사와 남복을 입고 기망하였사오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거늘 병사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하여 가로되,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치 말라.”
 하시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요. 행실을 가르치라.”
 하거늘 최 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 외당에 나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일후는 매화로 더불어 한자리에 앉지 말라.”
 하신대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 나 유리걸식하는 거지고, 너는 사대부 집안이라 집안차이. 너나 나나 부모님 동의 못받았고, 불효짓하면 안된다. 부모님 명을 받아서 백년해로 하면 좋겠다.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파악]

- 상객의 등장을 알리는 옥란. 사건 전개.

- 병사 = 양유 아빠

[지문 앞뒤 표현, 특히 고전소설은 동일 인물의 다른 표현 연결]

- 양유 아빠 조 병사는 매화 여자인거 아직 눈치 못 챘네.

[상황 파악]

- 내 눈은 못 속인다.

- 관상을 보아하니 양유는 앞날에 재상이 될 건데, 16세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것 같아서 불쌍하다.

- 안 좋은 소리해서 쫓아내려고 했더니 상객이 순식간에 사라짐. 고전소설의 전기적 요소. [어휘 풀이 해석에 반영]

- 남기고 간 봉투 열어보니 [어휘 풀이 해석에 반영]

- 매화랑 결혼 안하면 임진 3월 = 16세 때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 [지문 앞뒤 표현 연결해가며 읽기]

- 매화 너 여자라는데?

- 더 이상 속이지 않네. 여자라고 고백함. 자기 집안 내력 및 남장 고백. [상황 파악]

- 병사는 매화 여자라서 오히려 좋아.

- 매화 아내 교육 시키라는 조 병사.

- 남녀 떨어져 있어라.

- 떨어져 있으라는 부모 명 거역 못하는 양유.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파악]

차설이라.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당에 있으며, 시서(詩書)에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월명사창(月明紗窓)*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 제,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뉘로 하여금 공부하며 뉘로 하여금 노잔 말가.”

이렇듯이 자탄할 제, 이때 최 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 매화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남동생 있으며 혼사할 뜻이 있어 모계(謀計)를 꾸미더라.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상객이 이리이러하니 내두 길흉을 어찌하리요.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매화는 유리걸식하는 아이라, 근본도 아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병사 옳이 여겨 가로되,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일후에 장단골 가서 매화 근본을 알리라.”

- 작자 미상, 「매화전」 -

[문제] 다음 진술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1. 인물과 인물의 첨예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참 / 거짓)
2.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참 / 거짓)
3. 양유는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매화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 (참 / 거짓)
4. 매화는 부모의 허락을 전제로 양유의 청혼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참 / 거짓)
5. 상객은 양유와 매화가 혼인하지 않으면 양유에게 불행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참 / 거짓)
6. 병사는 매화의 용모와 양유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를 바탕으로 둘의 혼인에 대해 최 씨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참 / 거짓)
7. 최 씨는 매화의 근본을 핑계 삼아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참 / 거짓)

- 양유는 매화 보고싶지.

- 친구 잃어서 한탄

- 최 씨 부인은 매화 여자라니까 양유가 아니라 자기 남동생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네. 최 씨 부인이 빌런(반동인물)인 듯.

[상황 파악, 인물 파악]

- 매화 근본 모르니까 결혼 안 된다고 반대. 자기 남동생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듯.

[상황 파악]

[정답 및 해설] 1. 거짓, 2. 참, 3. 참, 4. 참, 5. 참, 6. 거짓, 7. 참

1. ‘첨예한’이 ‘과해서’ 거짓. 양유 매화 결혼시키려는 조 병사와, 자기 남동생이랑 결혼시키려고 반대하는 최 씨 부인 간 의견 대립은 있음. 그러나 이 정도로 갈등이 ‘첨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의견대립도 갈등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절대적) 이것을 갈등이 ‘첨예하고’ 이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상대적)이라고 보기 힘들. 거짓.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엄밀히 구분한다]
2. 지문에 엄청 많아서. 참.
- 양유 그 소리 들으며 ~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 양유가 그 글을 받아 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여 가로되,
- 병사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하여 가로되,
- 시서(詩書)에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 최 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 매화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 모계(謀計)를 꾸미더라
[선택지 표현-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 근거 찾기]
3.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냐. 아마도 곡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참.
[선택지 표현-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 근거 찾기]
4.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한다면 난들 아니 좋으리까.” 참
[선택지 표현-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 근거 찾기]
5.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삼일에 필연 호식(虎食)하리라.’ 참.
[선택지 표현-지문 표현 연결해 정답 근거 찾기]
6. ‘양유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가 없네.’ 거짓.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7. 실제로는 자기 남동생이랑 결혼시키려고 반대하는 거면서, ‘근본을 모른다.’는 핑계로 반대함.

#149 비문학

[지문]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Be the Reds'라고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다.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다.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공급 사슬망이란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Bullwhip effect)'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아기 기저귀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쭉날쭉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소매점-도매점-제조업체-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증가하였다.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 한다. 이는 채찍을 휘둘러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이 파동이 끝 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수요의 왜곡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소매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하게 된다. 그리고 도매점도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 주문한다.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다.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 공급을 보장받으려 한다. 결국 '수요의 왜곡'이 발생한다.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한다. 그리고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에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한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진다. 그런데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고, 재고량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은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다.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4일 정도 라면,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런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이는 재고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에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한다.

[문제] 다음 진술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1. 밑줄의 원인은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겠군. (참 / 거짓)
2. 밑줄의 원인은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겠군. (참 / 거짓)
3. 밑줄의 원인은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기 때문이군. (참 / 거짓)
4.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참 / 거짓)
5.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참 / 거짓)

#149 정답 및 해설

[지문]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Be the Reds'라고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다.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다.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공급 사슬망이란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Bullwhip effect)'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아기 기저귀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쭉날쭉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소매점-도매점-제조업체-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증가하였다.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 한다. 이는 채찍을 휘둘렀을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이 파동이 끝 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수요의 왜곡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소매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하게 된다. 그리고 도매점도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 주문한다.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다.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 공급을 보장받으려 한다. 결국 '수요의 왜곡'이 발생한다.

[현장독해]

- 모조품 판매 업체와 모조품을(=이를) 제조업체가 수익을 보고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 찾는 게 핵심

[지시대명사는 앞 표현 빌려서 제대로 해석]

[밑줄의 의미 파악, 지문의 핵심 파악]

- '재고'가 문제다! [키워드 파악]

- 공급 사슬망 관리. 키워드. [키워드 파악]

-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 상관관계가 긴밀해서 '사슬망'이라고 하는 듯. [전문 용어가 그렇게 이름 지어진 이유 파악]

- '채찍 효과'가 키워드 [키워드 파악]

- 예시 나왔고.

-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짐->주문 변동폭 증가 [비례관계 주의]
=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쭉날쭉 [지문 앞뒤표현 연결]
- 수요 변동폭 확대 = 채찍 효과

- 채찍 손잡이 부분 = 최종 소비자 [지문 앞뒤표현 연결]

- 파동이 끝 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 변동폭 증가. [지문 앞뒤표현 연결]

- 변동폭이 크면 분배, 계획, 운영 잘 못 해서 싫어한다.

- '채찍 효과의 이유' '수요 왜곡'이 키워드 [키워드 파악]

- 소비자 수요 증가 -> 소매점 추가 주문 -> 도매점 추가 주문 -> 제조업체 추가 생산 [인과관계, 비례관계 정리]
= 멀어질수록 수요 변동폭 증가 [인과관계, 비례관계 정리]

- 그러니까, 공급자가 적을 때는, 많이 주문 넣은 곳한테 먼저 공급해주니까, 원래 주문할 것보다도 더 많이 주문하는 경쟁이 생겨서 '수요의 왜곡', 즉 '채찍 효과'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하게 발생한다 이거네. [나만의 표현으로 상황 정리]

- 아 그니까, 티셔츠 유행해서 대리점에서 추가 주문했는데 채찍 효과 나서 스포츠 브랜드 업체에서 엄청 생산했다가 월드컵 이후에 안 사줘가지고 재고 왕창 남았다 이거네

[나만의 표현으로 상황 정리]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한다. 그리고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에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한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진다. 그런데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고, 재고량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은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다.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4일 정도 라면,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런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이는 재고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에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한다.

[문제] 다음 진술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1. 밑줄의 원인은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겠군. (참 / 거짓)
2. 밑줄의 원인은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겠군. (참 / 거짓)
3. 밑줄의 원인은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기 때문이군. (참 / 거짓)
4.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참 / 거짓)
5.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참 / 거짓)

- '대량 주문 방식'이 키워드 [키워드 파악]
- 물건 한두 개 -> 박스 -> 트럭
- =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진다 [인과관계, 비례관계 정리]
- > 재고 증가 =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못하게 되는 원인.
- =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 [지문 앞뒤표현 연결]
- '시차'가 키워드 [키워드 파악]
- 발주 실행 시간 =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
-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 = 시차
- 주문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4일 = 발주 실행 시간 [지문 앞뒤표현 연결]
- 몇 주 = 발주 실행 시간
-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 물류 이동 시간 증가
- 발주 실행 시간 길어지면 -> 주문량이 많아지고 -> 재고증가 [비례관계 주의]

- 재고 관리 비용 부담.
- 불필요한 재고 줄여야.

[정답 및 해설] 1. 거짓, 2. 참, 3. 거짓, 4. 참, 5. 거짓

1. 공급 사슬망 '벗어났다'? 벗어난 게 아니라,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급 사슬망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 '채찍 효과'가 나서 재고가 많아진 것이지. 오히려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난 모조품 판매 업체 및 모조품 제작 업체가 돈을 벌었지. 거짓. [반대의 경우 생각해보기]
2. 대리점은 정품을 생산해내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한테밖에 물건을 못 받으니까, 공급자가 제한적이었지. 대리점은 모조품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 1번 문제 표현처럼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공급자가 제한적이어서 채찍효과 영향이 더 컸던거지. 참. [앞에 선택지를 뒤 선택지 판단에 활용해보기]
3. 채찍 효과 세 번째 이유 '시차'보면, 발주 실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문량 많아지고, 재고 많아져서 수익 못 내고 난처해진 거지. 거짓.
4.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진다고 했지. 그 말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원자재 공급업체에는 가까워질수록 주문 변동폭이 커진다는 말이지. 참. 최종 소비자의 반대쪽이 원자재 공급업체니까. [반대의 경우 생각해보기]
5. 기저귀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주문 수요 들쭉날쭉한 게 채찍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지. 거짓. [지문 예시 계속 활용]

★★★ 경제지문 관련 기초 개념어와 기초 상식을 공부해두자 ★★★

경제지문은 기초 상식, 기초 개념, 기초 용어 없이 순수 독해력만으로 읽어서 다 맞히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일지라도 좋은 독해 습관을 바탕으로 한 현장 독해, 즉 순수 독해력으로 다 풀 수 있어야 하는 게 비문학의 대원칙이긴 한데요. 다만, '영어' 영역도 '영단어'와 '구문법'이라는 기초 없이 문제를 맞히기 힘든 것처럼, '법' 영역도 기초 없이 다 맞히긴 힘듭니다. 이렇게 일반 교과 범위 외의 전문 영역일지라도 관련 기초 상식을 요구하는 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23년 6월에 와서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단, 이 문제는 출제 범위를 벗어난 킬러문제고 앞으로는 안 나올 버려도 될 쓰레기 문제로 치부하고 무시하지 마시구요. **내 앞에 주어진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맞히겠다는, 현실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마인드로 아래의 용어들 공부해둡시다.** 아래 용어들은 출제자가 경제지문 쓰면서 수험생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들입니다. 위에 '고등학교 1학년'지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휘 풀이를 '단 한 개'도 적어주지 않았고 다 갖다가 썼습니다. 지문에 개념 정의나 예시를 통한 부연설명조차 안 해준 표현은, 기초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출제자가 요구한 것입니다. **기초적인 용어들을 알아두지 않으면, 출제자는 엄밀하게 구분해서 표현했는데 수험생은 구분하는 건지 눈치 못 채구요. 출제자는 의도하고 의식해서 표현한 건데 수험생은 반응하지 못 합니다.** 기초적인 공부를 해두셔서, 남들은 틀리고서 문제 욱하고 출제자 욱하고 있을 때, 여러분만큼은 맞히고 나아가 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지문 관련 기초 개념어 ★★★

- 재화 :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물질.
- 소비자 :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
- 공급자 : 공급하는 사람이나 기관.
- 수요 :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
- 공급 : 교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
- 수요와 공급의 법칙 :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정해진다는 법칙
- 수익 : 일이나 사업을 해서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
- 비용 :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
- 정품 : 진짜이거나 온전한 물품
- 모조품 : 딴 물건을 본떠서 만든 물건
- 브랜드 : 상표
- 대리점 : 일정한 회사 따위의 위탁을 받아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일을 하는 가게
- 소매점 : 물건을 생산자나 도매상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점
- 도매점 :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소매상을 상대로 여러 개를 한 단위로 해서 판매하는 상점
- 유통업체 : 상품이 생산자·상인·소비자 사이에 거래되게 해주는
- 제조업체 : 공장에서 원료를 가공해 제품, 물건을 만드는
- 원자재 공급업체 : 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 소비 :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를 소모하는 일
- 주문 :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에게 품종·수량·모양·크기 등을 일러 주고, 그렇게 만들거나 보내 달라고 하는 일
- 발주 : 물건을 주문함
- 수주 : 주문을 받음. 특히, 생산업자가 제품의 주문을 받는 일
- 생산 : 자연물에 인력을 가하여 재화를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일. 또는 그런 활동
- 유통 : 상품이 생산자·상인·소비자 사이에 거래됨
- 마케팅 :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 시장 조사·상품 계획·선전·판매 촉진.
- 물류 : 원재료·제품 따위 상품의 사회적인 흐름 혹은 개별 기업이 행하는 상품의 포장·수송·하역·보관 및 통신 따위의 여러 활동.
- 재고 : 상점에 아직 내놓지 아니하였거나, 팔다가 남아서 창고에 쌓아 둔 상품

#150 문법

<보기>

음운의 교체는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두 음절이 인접한 경우 ㉠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 앞말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데소리와 만나는 상황에서 음운이 교체될 때, 발음의 결과 ㉢ 앞의 음운만 변한 경우나 ㉣ 뒤의 음운만 변한 경우도 있지만 ㉤ 두 음운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천루[마철루]’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② ‘목덜미[목떨미]’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③ ‘박람회[방남회]’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④ ‘쇠붙이[쇠부치]’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⑤ ‘땀받이[땀바지]’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2018년 고1 11월 11번 문법 지문 참조

#150 정답 및 해설

<보기>

음운의 교체는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두 음절이 인접한 경우 ㉠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 앞말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데소리와 만나는 상황에서 음운이 교체될 때, 발음의 결과 ㉢ 앞의 음운만 변한 경우나 ㉣ 뒤의 음운만 변한 경우도 있지만 ㉤ 두 음운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천루[마철루]’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② ‘목덜미[목떨미]’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③ ‘박람회[방남회]’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④ ‘쇠붙이[쇠부치]’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⑤ ‘땀받이[땀바지]’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현장독해]

- 언매 문법은 늘 함정 주의

- 연음
- 가운데소리는 중성, 모음을 의미했지.
- ㉠역행동화, ㉡순행동화, ㉢상호동화 얘기.

[출제자의 표현을 내게 편한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

[정답 및 해설] ⑤

① ㄴ이 ㄹ로 유음화. 앞말의 끝소리 ㄴ과 뒷말의 첫소리 ㄹ이 만나는 상황 ㉠. 앞의 음운만 변했으니 ㉢. 참
표준발음법 제20항 :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② ㄷ이 ㅌ으로 경음화, 된소리되기. 앞말의 끝소리 ㄱ과 뒷말의 첫소리 ㄷ이 만나는 상황 ㉠. 뒤의 음운만 변한 ㉣. 참.
표준발음법 제23항 :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③ 우선 ㄹ이 ㄴ으로 비음화. 앞말의 끝소리 ㄱ과 뒷말의 첫소리 ㄹ이 만나는 상황 ㉠. 뒤의 음운 ㄹ이 ㄴ으로 변했고,
표준발음법 제19항 [붙임] :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 ㄹ이 변해서 된 뒤의 음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앞의 음운 ㄱ이 ㅇ으로 비음화, 앞뒤 두 음운이 모두 변한 경우 ㉤
표준발음법 제18항 :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④ 앞말의 끝소리 ㅌ이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데소리 'ㅣ'와 만나는 상황 ㉡. 앞의 음운 ㅌ이 ㅊ으로 구개음화되어 앞의 음운만 변한 경우니까 ㉢.
표준발음법 제17항 :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ㅊ, 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중성(가운데소리) 앞의 초성 'ㅇ'은 음가가 있지 않으므로, ㅇ이 ㅊ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틀림

⑤ 앞말의 끝소리 ㄷ이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데소리 'ㅣ'와 만나는 상황 ㉡. 앞의 음운 ㄷ이 ㅊ으로 구개음화되어 앞의 음운만 변한 경우니까 ㉢. ㉤에 해당한다고 했으니 틀림
표준발음법 제17항 :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ㅊ, 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151 문학

[지문]

[A]
 乍晴還雨雨還晴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이니,
 天道猶然況世情 하늘의 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B]
 譽我便是還毀我 나를 기리다가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逃名却自爲求名 공명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함이라.

[C]
 花門花謝春何管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고.
 雲去雲來山不爭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D]
 寄語世人須記認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
 取歡無處得平生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 김시습, 「사청사우(乍晴乍雨)*」 -

*사청사우(乍晴乍雨): 날이 맑았다 비가 오다 함, 변덕스런 날씨
 를 가리킴

[문제]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세상 인정에 대한 화자의 부정
 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세상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를 들고 있다.
- ③ [C]에서는 가변적인 대상과 불변적인 대상을 대조하여 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A] ~ [D]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묻고 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2020년 고1 6모 43번 문학 문제 참조

#151 정답 및 해설

[지문]

[A]

乍晴還雨雨還晴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이니,
 天道猶然況世情 하늘의 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B]

譬我便是還毀我 나를 기리다가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逃名却自爲求名 공명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함이라.

[C]

花門花謝春何管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고.
 雲去雲來山不爭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D]

寄語世人須記認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
 取歡無處得平生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 김시습, 「사청사우(乍晴乍雨)*」 -

[문제]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세상 인정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세상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 ③ [C]에서는 가변적인 대상과 불변적인 대상을 대조하여 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A] ~ [D]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묻고 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독해]

[A]

- '변덕스런 날씨' 1구 = 제목 = 어휘풀이 다 같은 얘기하네.
[지문 표현, 제목, 어휘 풀이를 연결지어 생각]
 - 그러하다 = 변덕스럽다. 하늘의 도도 변덕스럽거늘, 하물며 세상의 인정도 역시 변덕스러울 것이다. 하늘과 세상의 공통점.
[지시형용사 '그러하다', 지시대명사 '이것' 등의 의미를 앞 표현과 연결지어 명확히해보고 넘어가기]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를 파악해보기]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기]

[B]

- 나를 기리다가도 헐뜯는다 = 변덕
 - 공명을 피하다가도 구한다 = 변덕

[C]

- 꽃이 피고 지는 걸 봄이 다스리지 못한다.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를 파악해보기]
 - 구름 오가는데, 산은 다투지 않는다.
 - 구름이나 꽃은 변덕스러운데, 봄이랑 산은 변덕스럽지 않는다?

[D]

- 명령. 강조.
 - 변덕스러운 것들을 다스리려 하거나 다투려고 하지 마라. 변덕스럽지 않아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만한 것을 기억해서 알아두라. 이게 주제인 듯. **[나만의 표현으로 주제, 상황 등 핵심정리]**

[정답 및 해설] ⑤

- ① '사청사우 = 비 오다 개는 자연 현상 = 세상 인정도 변덕스럽다' = 부정적 인식. 참
[제목-지문표현-선택지표현 연결해서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② '나를 ~하다가 나를 ~하고, 공명을 ~하더니 공명을 ~한다.' 대구법. 나, 공명에 대한 세상 인정의 변덕스러운 태도니까 구체적 사례도 맞고. 참.
- ③ 가변적인 대상은 꽃이랑 구름, 봄과 산은 다스리거나 다투지 않는 불변적인 대상(?) 꽃과 봄이 대조되고 구름과 산이 대조되고(?) 구름과 산의 대조는 정답의 확신성이 높고, 꽃과 봄은 애매.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세모치고 넘어가자.
- ④ 8구 '어디에서 평생의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7구 '반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 7구와 8구가 도치. 참.
- ⑤ [D] 7구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라고 했으니,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네. 근데 [A]~[D]에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은 없음. 거짓.

[없는 것을 있다고 해도 틀린 것이다]

★★★ ①②③④번 선택지가 이상하다며, 문제가 쓰레기라는 학생들에게 ★★★

1. ①번을 찍어서 틀린 19.0% 학생들

① [A]에서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세상 인정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Q. 변덕스럽다고 다 부정적인 건가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①번이 틀렸다고 했어요.

A. 맞아요. 변덕스럽다고 '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찾아보면, '변덕스럽다 : 이랬다저랬다 하는, 변하기 쉬운 태도나 성질이 있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①번이 틀린 진술이라 정답으로 찍기까지는 가셨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애매하니까 세 모△치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변덕스럽다고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을 할 때 가슴 한 켠에서는 찝찝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 찝찝함을 외면하시면 안 되고 근거를 찾아보셨어야 합니다. [A] 뒤의 [B][C][D](숲) 그리고 주제의식(태산)을 보아도, 변덕스러운 세상 인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거나, 좋지 않게 보거나, 적어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B][C][D]는 [A]가 아니니까, [B][C][D]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도, [A]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느냐는 반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소수론)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진술이 '틀렸다'고 확신해서 다른 선택지를 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연이나 하늘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속세나 인간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고전시가의 대표적인 주제의식으로 많이 접해오셨을 테니까요. 물론, 대부분의 고전시가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이 시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거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전시가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틀릴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앞에 편견만큼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구요.

++ 그러니 ①번 '부정적 인식'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틀리다고 하고 정답으로 냅다 찍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나머지 선택지까지 다 본 후, 정답의 확신성이 더 높은 ⑤번을 찍어서 맞힌 다음에, ①번도 애매하지 않냐고 제게 질문하는 멋진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②번을 찍어서 틀린 16.8% 학생들

② [B]에서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세상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Q. [B]의 3구와 4구가 '완벽하게' 대구를 이루지 않다고 생각해서 ②번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A. 다가vs더니, 문득vs도리어, 스스로가 없고vs있고, ~하다vs~이다. 다른 부분이 엄청 많죠. 이 정도면 '대구법'이 맞다는 확신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대구법'이 틀리다는 확신성이 높아지는 정도인데요. 생각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는 대구법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대구법을 사용하기는 한 것이며, 대구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법이 약하게 쓰였다고 해서 대구법이 안 쓰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계기로, 조금이라도 형태적 유사성이나 문장구조상의 유사성이 있으면 '대구법'을 사용했다고 봅시다. 본인이 대구법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엄격함이 과도하며, 앞으로 대구법을 판단할 때는 좀 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보자고 다짐합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엄밀히 구분한다]**

3. ③번을 찍어서 틀린 10.6% 학생들

③ [C]에서는 가변적인 대상과 불변적인 대상을 대조하여 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Q. 꽃은 가변적인 대상이지만, 봄은 불변적인 대상이라고 보기 힘들고, 심지어 꽃과 봄이 대조가 아니라서 ③번 틀렸습니다.

A. 맞아요. 그래서 출제자 분께서도 해설에 '[C]에서 가변적인 대상인 '구름', 불변적인 대상인 '산'을 대조하여 '산'처럼 의연하게 살아야 한다는 화자의 의도를 전하고 있다.'고만 써 놓으셨습니다. 꽃과 봄 얘기 아예 안하셨어요. 명심하세요. '꽃-봄'의 관계가 대조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가변적인 구름 - 불변적인 산'의 관계가 대조적이라는 사실이 틀리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나의 생각이 맞다 해서, 그걸 근거로 나와 다른 생각이 틀리다 판단하면 안됩니다. 구름이 가변적이지 않다거나, 산이 불변적이지 않거나, 구름-산이 대조적이지 않아야 이 진술이 틀리는 겁니다. 구름 가변적이고 산 불변적이고 둘이 대조라서 맞는 진술입니다.

+ '저는 꽃-봄 중심으로 생각했는데요?' 어쩌라구요. 출제자 및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꽃-봄'에서 더 나아가 '구름-산'까지도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당신처럼 '꽃-봄'은 틀리다라고만 대충 생각한 게 아니라, 꽃-봄은 틀리지만 구름-산은 맞으니까 맞는 선택지라고 했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푸는데 당신보다 더 많은 부분을 더 잘 판단했으니, 당신은 틀리고 남들이 맞는 게 바로 변별입니다. '꽃-봄'만 판단하시고 계속 우기실거면 변별 당하셔도 씁니다. 앞으로는 변별당하지 맙시다.

4. ④번을 찍어서 틀린 13.4% 학생들

④ [D]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Q. 도치하면 어순이 이상해지는데, 그럼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흐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④번 틀리다고 했습니다.

A.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긴 한데요. 대구법, 의인법, 비유법, 도치법 등등 표현방법을 쓰는 목적 자체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려고 쓰는 겁니다. 즉, 도치법 등의 표현법이 쓰이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강조되는 건 대부분, 99%, 아니 거의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은 사실상 '도치법'이 쓰였냐 안쓰였냐를 묻는 단순사실판단과 다른없는 걸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표현법을 너무 과하게 쓰고, 자기만 이해할 수 있게 써버리면, 요새 여러분 말로 아싸가 뇌절을 하면 오히려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흐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태 국어 시험에서 '특정 표현법을 써서 강조'라는 진술이 틀리는 경우는 '특정 표현법'이 쓰이지 않아서 틀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례가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진술을 판단하실 때는 '도치법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셨기를 바랍니다.

+ 7구 8구 이렇게 구 단위로 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그 의도를 파악해보는 좋은 습관처럼, 도치법도 평서형으로 바꾸어 그 의도를 파악해보는 좋은 습관을 가져본다면 '도치법'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더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5. ⑤번을 찍지 못해서 틀린 60% 학생들

⑤ [A] ~ [D]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묻고 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Q. 설의적 표현은 수사의문문으로서, 묻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⑤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두라고 명령하는 건 있습니다. 자신이 속으로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나, 정답을 짐짓 모른 체하며 수사의문문의 형태로 묻는 '설의법' '설의적 표현'이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설의적 물음을 작품 내에서 청자로 설정한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걸 물었기 때문에, 그 물음에 대해 대답하는 것 역시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정답의 확신성은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틀린 겁니다.

※ 그 무엇이든 간에, 내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들려고 해야 남들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다 ※

①②③④를 찍고 틀린 후에,
문제가 이상하다며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이따 문제에는 배울 게 없다며 내다 버리지 마시고,

일단 가장 정답에 가까운 ⑤번을 찍고 맞힌 다음에,
애매했던 점을 분석하여 약점까지 보완하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152 멘토링

프로들의 모습2. 자신의 장점이 단점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자신이 잘한 점이
사소한 부족함 때문에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프로입니다.

필기시험 전교 2등하면 뭐해요.
수행평가 30점 깎아서 3등급 댔는데요.
필기 전교권이라고 정신승리 해봤자
당신 3등급입니다.
억울하다구요?
그럼 수행평가도 잘 챙겼어야죠.

수학 과학 전국 1등이라구요?
국어 영어 못하면요,
가고 싶다는 대부분의 의대는 못 갑니다.

상위 1%나 할 만한 번뜩이는 풀이법을 떠올렸어도,
계산실수하면 문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풀이량이 많아도,
오답률이 높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성실하게 많이 공부해도,
꼼꼼함 부족하고 기본기 부족하면 성적 안 오릅니다.

빠르게 시간 내에 다 풀어봤자,
거의 다 틀리면 세상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막힘없이 풀면서도 정확하게 해야 진짜 잘 하는 겁니다.

면접에서 백 마디 말 잘하면 뭐합니까?
한마디 말이라도 실수하면 그 면접 떨어집니다.
면접은, 합격시켜야할 이유도 많아야 붙지만,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야 붙는 겁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전달하려다가,
단점을 드러내버리는 치명적 실수를 하면 당신 안 뽑습니다.

잘한 점이 아무리 많을 지라도,
부족한 점이 너무 크고 치명적이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족한 점, 제대로 못한 점이 너무 크면
열심히 하고 좀 잘한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러니 잘한다고 세상에 인정받고 싶다면,
정말 제대로, 다 잘하려고 해야 합니다.

전체 정답률도 낮고 1등급 정답률도 낮은,
소위 킬러문제를 나만큼은 맞히는 남다른 뛰어난 능력.

전체 정답률은 낮고, 1등급 정답률은 높은,
공부깨나 한 사람이라면 다 맞히는 문제를 나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실력.

전체 정답률도 높고, 1등급 정답률도 높은,
누구나 다 맞히는 쉬운 문제를 실수 없이 잘 맞추는 꼼꼼함.

셋 다 잘해야 합니다.

오히려 번뜩이는 뛰어난 능력은 좀 못해도 됩니다.
킬러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재수까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 다 맞히는 쉬운 문제를 잔실수로 틀리면,
성적이 안정되지 못하고 재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한 점은 늘리고,
부족한 점, 못한 점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떻게든 줄여가며
실전에서 조금이나마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세상으로부터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단점을 잘 다듬어서 남들이 사소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좋은 점이 더 많으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프로가 되자구요.

#0 나가기 전에 : 제작 방향성

문제나 풀자

저는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 등을 칼럼 형식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에 지쳐 버렸습니다. 좋은 독해 습관, 좋은 풀이 습관들을 그저 소개만 해서는, 아무리 쉽고 재밌게 얘기하더라도 한계가 있더군요. 제가 여전히 많이 부족한가봅니다.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고치고, 좋은 방법들은 최대한 많이 자기 습관으로 만드는 그 실질적 행동 방법. 그 실천 지향적인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국어 고수들의 그렇게 잘나고 멋들어진 풀이를, 결국 학생 스스로가 시험 순간에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자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전, 좋은 방법들을 그저 소개만 하고 있을 시간에,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한 문제를 푸는 학생조차도, '좋은 자극, 좋은 긴장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엄선하고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난도·최다오답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도 가끔씩 실수하는 문제, 누구나 한번쯤은 틀려가며 배우는 문제, **좋은 습관대로 푼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풀어봤는데 틀려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해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좋은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제게도, 시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나오리라 믿습니다.

도전하여 내 것으로 만들자

이 자료의 문제들은, 국어 기초 개념, 즉 '고전 어휘 및 고전 독해법'과 '문법 개념' 등을 1회독 한 학생.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이해항 선생님의 [국어의 기술]과 같은 기초 개념서를 1회독 이상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도전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는 수업 설명회에서도 학생·학부모님들과 이 문제들을 함께 푹니다. 수업 커리큘럼·계획서·분석 자료를 그럴듯하게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눈앞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큰 공감을 얻더군요. 중학생·고1·고2·고3·N수·학부모 등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이 자료는 내가 풀 게 아니라고 편견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는 마인드로, 해당 자료의 문제들을 다 맞히고 막힘없이 설명해내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스스로 설명해보자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 풀고 해설 읽는 거죠. 다만, 남들보다 질적으로 높게 이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데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정답과 근거를 설명해본 후 해설과 비교해보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안하게 되고, 좋은 습관은 해내게 될 겁니다.

굳이 이 자료를 복습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여기서 알게 된 좋은 습관들과 방법들을 평소 국어 문제 풀 때 적용해보려고 하세요. 또는 몇 달 혹은 1년 후에, 똑같은 문제를 스스로에게 다시 설명해보면서 자신이 성장했는지를 점검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해설에서 공감 가는 부분, 스스로 잘 안됐던 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몇 번이고 다시 복습하면 더욱 좋기야 하겠지요. 반복의 지루함을 인내하고 복습하는 자가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에 어색했던 것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만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복습 잘 못하거든요. 복습만 잘 해도 대한민국 90%는 이길 수 있습니다.

색다르게 해보자

일반적인 국어 문제들을 풀다 지쳐 토할 것 같을 때, 공부하기는 너무 싫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마다 가끔씩 들춰보고 또 몇 문제 풀어 보세요. 문제도 유형도 영역도 형식도 평소 풀던 것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인생에 걸쳐서 도움이 될 좋은 독해 습관과 좋은 풀이 습관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더라